

어서 대상의 확대가 필요하다. 현재 정책 대상으로 저소득층, 거동불편노인, 장애인등의 의료취약계층을 선정하고 있다. 이를 포함하여 중소기업 밀집지역에서 노동안전예방 기능을 하는 '노동안전 지원형 보건지소' 설립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저소득층을 배타적인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특성에 맞게 확대하는 방안이다.

□ 참고문헌

- 감정기. '산업복지론 수업 노트' 출처 미상
- 노동부. 2005, '노동백서'
- 노동부. 2005, '노동부 업무추진 계획'
- 근로자복지기본법. 2005년 3월 31일 개정안
- 노동부. 2002. '근로복지증진기본계획'
- 박찬임. 2002. '근로자복지 기본법 제정에 따른 공공근로복지사업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통계청. 2004년. '주택소유현황조사'
- 통계청. 2005. '전국 도시가계 경상소득 - '05. 2/4분기'
- 한겨레신문. 2005년 9월 23일자

##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사업주의 실태와 특성

대표집필 : 김성기 /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지방자치위원장

때는 7월 퇴약별이 작열하는 한여름이었다. 성수동 주택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작은 공장은 점심 식사 이후 일을 해야 할 시간이었지만, 사장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다. 먼저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성수동 영세 사업장 실태조사를 나왔습니다.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노동당에서 나왔습니다' 하니, 그 분 대뜸 화부터 내시는 것이다. '정치하는 사람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나가라는 것이다' 눈앞이 아른했다. 한참 동안 취지를 설명하고 나서야 그분은 말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 분은 금속 사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이였다. 한 공장에서 다른 분과 각 각 작은 기계설비 하나 설치하고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이다.

그 분의 호소는 현재 중소 영세 제조업체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게 해준다.

“요즘 공장 사장들 제품 생산하는 데 별로 의욕이 없어요. 차라리 부동산에 관심이 많습니다. 부동산 투자 열기로 중소기업 사장들도 기계나 설비에 투자 안합니다. 강남에서는 노무현의 지지가 상승한답니다. 불로소득으로는 돈벌고, 뼈빠지게 노동해서는 돈 벌지 못하는 세상! 이거 세상 말세 아닙니까?”

“중국 제품 수입 때문에 국내 영세공장의 타격은 심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만드는 제품 원가에도 못 미치는 것을 수입하는데 누가 국내 제품을 이용하겠어요. 다른 나라 제품은 사주고 국내 제품은 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데 무슨 재주로 살겠어요. 일본이나 이탈리아는 자국 생산품을 보호라도 해준다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보고 살아 남으라니...”

“삶의 터전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오전에 기계 돌리고 나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제품 주문량이 많지 않아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침체 되면 내 집 팔아야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나왔을 판입니다. 이러다 아내마저 가출하면... 내가 노숙자로 나왔을 것 같은 불안감마저 최근에는 들 지경입니다. 솔직히 노숙자 분들 그 사람들도 예전에 나처럼 이렇게 공장 운영하던 분들 많아요.”



한참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설문조사를 받고 공장을 나섰다. “꼭 우리의 얘기를 정책에 반영해 주세요. 이렇게 공장까지 찾아와서 우리와 이야기를 하시니 당신들 믿음만 합니다.” 가을에 결과 보고서 나오면 다시 꼭 찾아뵙겠다고 약속하고 씩씩한 마음 뒤로 하고 다른 공장으로 향하였다.

이 보고서에 중소 영세 제조업종 사업주들의 실태를 담았다. 현장의 생생한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였다. 이 보고서가 작은 공장 문제 해결의 조그마한 실마리라도 제공했으면 한다.

## 1. 조사사업 개요

### 1) 조사목적

① 성수동 지역 금속, 인쇄, 제화업종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50인 미만 영세 공장 사업주의 고충 및 문제의식을 파악 한다.<sup>34)</sup> 이를 통하여 침체에 직면해 있는 중소 영세 산업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할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

○ 노광표(2005)는 정부의 중소기업 대책은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관계 구축, 자영업 대책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안은 없어, 결과적으로 시장의 힘(자율)에 모든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은 3만개의 핵심 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두고 나머지 다수의 중소기업은 경쟁력 없는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향후 한계 중소기업의 대량 퇴출과 중소기업 노동자의 고용 문제가 필연적으로 제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았다.

○ 본 조사에서는 ‘경쟁력 없는 구조조정의 대상’인 50인 미만 중소영세 제조업의 생존적인 위기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하여 기존 영세 중소기업 대책의 현실성을 현장과 비교해 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할 것이다.

② 중소 영세 제조업 사업장의 현황, 노동복지에 대한 이행 수준 등을 파악하여 ‘영세사업주의 노동자에 대한 지불능력’의 수준을 파악하고, 노동자의 노동복지 증

34) 본 조사에서는 50인 미만 사업장을 주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나, 실제 조사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약 90% 가량으로 나타났다. 규모에서는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속하며 소기업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 주 대상이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적인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비교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의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진을 위한 사회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노광표는 중소기업 대책은 한국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립 및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제적 지위향상 및 권익 신장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았다.

○ 본 조사에서는 중소영세 사업체의 산업적 측면에서의 실태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주의 소득, 가구 특성 등의 조사를 통하여 지불능력 수준을 파악하였다. 동시에 노동자에 제공하여야 할 법정 복지 영역 중 4대 보험에 대한 적용 실태를 파악하였다.

○ 이를 통하여 중소 영세 제조업의 육성 문제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사회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이 정부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함을 확인할 것이다.

③ 성수동 영세 공장 사업자의 ‘똑섬 뉴산업단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파악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지역산업단지’ 개발 방향에 대한 사업주의 문제의식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지역산업 현장에 종사하는 사업주의 요구를 모아 사회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 서울시와 성동구는 2004년부터 ‘똑섬 뉴산업단지 종합발전 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다. 주요 골자는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IT, BT 등 첨단 신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성수동 영세 중소 제조업 사업주들의 위기의식을 확인하고, 사업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향후 지역사회에서의 대응 방안을 모색할 근거로 삼고자 한다.

### (2) 조사대상 및 조사 방법

#### 1)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의 모집단 규모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성동구의 사업체 및 제조업체 현황

구분	내용	출처
성동구 총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	25,314개 / 117,487명	성동구 통계연보(2003년)
성동구 제조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940개 / 27,465명	성동구 통계연보 (2002년)
성수동 제조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276개 / 22,071명	"
50인 미만 제조업종 사업체 및 종사자 수	1,889개 / 18,974명	성동구 통계연보(2003년)

\* 성동구 통계연보. 2002, 2003년 재구성



○ 성동구 및 성수동의 제조업종 사업체 현황(성동구 통계연보, 2003년 자료)  
 성동구의 금속, 인쇄, 제화, 전자 등 제조업종 사업체의 총 수는 1,940 개이며, 종사자는 27,465명이다. 그리고 성수 4개동의 제조업종 사업체의 수는 1,276개이며 종사자는 22,071명이다.

정리하면, 성수동에는 성동구 제조업 사업체의 약 65% 가량이 모여 있으며, 노동자는 80% 가량이 종사하고 있다.

○ 성동구의 50인 미만 제조업종 사업체 현황 (성동구통계 연보, 2003년 자료)  
 성동구 통계연보 2003년 자료에 따르면 성동구 제조업종은 1,940개이며, 이중 50인 미만 사업체의 수는 1,914개로 나와 있다. 이는 총 제조업체의 약 97%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따라서 성동구 제조업은 대부분 50인 미만 사업체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중 50인 미만 사업체의 종사자의 비율은 약 69% 가량이다.

## 2) 조사방법

### ○ 조사원

· 공동실태조사단<sup>35)</sup> 소속 단체 상근활동가 10명, 자원봉사자 10명 총 20명이 참여하였다.

· 자원봉사자는 노조와 단체의 회원, 그리고 성공회대, 한양대 학생이 참여하였다.

### ○ 조사기간

· 2005년 7월 1일 - 7월 30일 한달 동안 진행하였다.

· 추가 조사의 필요성으로 9월 초에 전화를 통한 확인 작업과 직접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 ○ 조사대상

· 조사대상은 성수동의 50인 미만 금속, 인쇄, 제화 업종 등의 제조업종을 중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추가로 서울 중구 을지로 지역의 인쇄 업종에 대한 조사도 하였다.

### ○ 조사방법

· 영세 사업주 대상의 구조화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부록 참조)

영세공장 직접 방문 면접조사와 길거리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35) 공동 실태 조사단으로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노동건강연대, 민주노총 서울본부, 서울지역일반노조, 금속노동조합동부지회, 서울경인지역인쇄노동조합, 성동희망나눔 부설 실업자종합지원센터, 성동건강복지센터, 성수삼일교회 내일의 집 총 9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최근에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실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참여하였다.

### ○ 조사원칙

· 조사는 공동실태조사단 소속단체 상근자와 사전 조사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가 직접 개별 방문과 길거리 조사를 통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응답의 거절시 무효처리)

### ○ 조사분석

· 비정규직지원센터의 통계프로그램 전문가가 SPSS 통계 프로그램에 의해 빈도 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 (3) 조사내용 및 조사한계

### 1) 조사내용

영역	조사항목
사업장의 특성	업종, 노동자 고용방식, 사업체 등록 유무, 사업체 규모, 4대보험 적용 여부, 부채 현황, 사업주의 경력 등
영세 산업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과 태도	4대 보험에 대한 의식 및 해결방안,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 정부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등
지역 현안문제	독점 뉴타운 개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일반적 사항	· 설문 응답자에 관한 사항 성별, 연령, 혼인여부, 학력, 거주지역 · 가족과 관련한 사항 가구원수, 가구원 구성원, 주거형태, 가구 소득규모(주소득원)

### 2) 조사의 한계

○ 사업장 규모별, 업종 별로 모집단에서 무작위 추출하여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엄밀한 통계적 의미를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 2. 성동구 산업 및 제조업종 현황 및 특성-성수동을 중심으로

### (1) 성동구 소개

#### 1) 지리적 특성

○ 성동이란 명칭은 도성의 동쪽이란 뜻으로 서울의 동북쪽에 위치하여 동으로는 새로 분구된 광진구, 서로는 중구, 용산구가 있으며, 남으로는 한강과 인접하고 있고, 북으로는 동대문구와 이웃하고 있다. (성동구청, 2004)

○ 성동구는 지리적으로 한강과 인접하고 있어 예로부터 한강 이북과 이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성동구는 서울시 권역 구분상 부도심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또한 주거 기능만 있는 여타의 자치구와는 달리 2.17km<sup>2</sup>에 달하는 성수 준공업지역<sup>36)</sup>의 생산 기능과 용답동 중고자동차매매시장, 마장 축산물 시장의 대형 유통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성동구는 주거, 생산, 유통 기능을 갖춘 복합형 형태의 도시 기능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성동구청, 2004)

#### 2) 인구와 면적

○ 성동구의 인구는 2004년 6월 30일 현재 128,219세대 340,435명으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구변동 폭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다. 각종 개발사업이 많은 성동구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인구 감소와 증가의 폭이 크지 않게 나타난 편이다.

○ 성동구의 총 면적은 16.4km<sup>2</sup>로 서울시 전체 면적의 2.8%에 해당한다. 총 20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10.29km<sup>2</sup>, 상업지역 0.43km<sup>2</sup>, 준공업지역 2.12km<sup>2</sup>, 자연녹지지역 3.90km<sup>2</sup>로 되어 있다.

36) 공업지역이란 도시계획에서 용도지역(用途地域)으로서 공업의 편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지역이다. 준공업지역과 공업지역이 있고, 다시 공업전용지역이 지정될 경우도 있다. 준공업지역에서는 환경의 악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공장은 허가되지 않지만, 공업지역에서는 어떤 종류의 공장이라도 허가되며, 반대로 공장과 관계가 없는 학교·병원·음식점·여관 등의 건축은 허가되지 않는다. 공업전용지역에서는 공장과 관계가 없는 것은 모두 금지된다.(네이버 백과사전)

### (2) 성동구 산업현황

#### 1) 성동구 산업 일반 현황

##### ○ 성수동 준공업 지역

·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은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준공업지역의 면적은 2.12km<sup>2</sup>이며 구 전체면적의 12.7%를 차지하고 있다. 행정동으로 성수1가1동, 성수1가2동, 성수2가1동, 성수2가 3동 총 4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 ○ 성동구 공장 관련 현황 (성동구청, 2004)

· 성동구의 등록 공장은 962개 업체이며 미등록공장 990여개이다. 따라서 총 성동구 공장수는 1,800여개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성동구에는 벤처기업과 아파트형 공장이 늘고 있다. 현재 관내 벤처 기업수는 125개이며, 아파트형 공장은 총 10개소 (완료7, 시공중 1, 시공중단 2)이다.

### (3) 성동구 제조 산업의 현황 및 특징

#### 1) 성동구 제조업 업종별 현황

○ 2002년 성동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성동구 업종별 제조업의 총수는 1,894개로 2천개에 약간 못 미치고 있다. 의류 업종, 제화 및 가죽 관련 업종, 금속 관련 업종, 출판 및 인쇄관련 업종의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2] 성동구 업종별 제조업 현황

업종	사업체수(개)	구성비(%)
<b>제조업</b>	<b>1,894</b>	<b>100</b>
음,식료품 제조업	24	1
섬유제품 제조업, 봉제의복 제조업	223	12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397	21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95	1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9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59	3
출판,인쇄 및 기록매체	216	11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12	1
고무 및 플라스틱제조업	64	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6	0
제1차 금속산업	15	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37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99	11
사무, 계산, 회계용기계 제조업	17	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화장치 제조업	89	5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1	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73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	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2	0
가구 및 기타 제조업	101	5
재생재료 가공처리업	-	-

\* 성동구청, 2002. '성동구통계연보'

○ 금속, 인쇄, 제화 관련 제조업종의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3]와 같다. 제조업 총수에서 이 3개 업종의 수는 762개로 나타나 있으며, 이는 성동구 전체 제조업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 3개 업종의 대다수는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금속업종의 경우 왕십리권에도 일부 있다.

[표-3] 성동구 금속, 인쇄, 제화 제조업종 현황

업종	사업체수(개)	구성비(%)	
제조업	1,894	10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제화)	195	10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인쇄)	216	11	
금속	제1차 금속산업	15	1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137	7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99	11
금속, 인쇄, 제화 업종 소계현황	762	40	

\* 성동구청, 2002. '성동구통계연보' 재구성.

○ 성동구의 제화 업종의 규모는 총 195개이다. 전국 총 제화업종의 수가 2,159개<sup>37)</sup>임을 감안하면, 전국 제화업종의 약 10%에 해당한다. 이들 제화 업종은 대부분 성수동에 밀집되어 있다. 실제 성수동에서는 제화거리가 존재한다.

한편 인쇄업종의 경우 216개인데 이는 전국 5,810개<sup>38)</sup>의 약 3.5%에 해당한다. 서울의 경우 대표적인 인쇄업종 지역은 을지로 지역이다. 을지로 지역은 상당히 영세한 인쇄업종이 밀집되어 있는 반면, 성수동 지역은 을지로에 비해 다소 규모가 큰 업종이 있다.

37) 통계청, 2003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38) 통계청, 2003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2) 성동구 사업체 규모별 제조업 현황 및 특성

○ 2003년 성동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업체 규모별 제조업 현황은 아래 [표-4]과 같다. 총 사업체 수는 약 2000개, 종사자수는 2만 7천여명, 연간급여액은 5,267억원대, 생산액은 3조4,219억대, 부가가치는 1조5천억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4] 성동구 사업체 규모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규모별 중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생산액	부가가치
총계	1,940	27,465	526,754	3,421,915	1,520,052
5 ~ 9	1,289	7,854	106,984	755,457	329,734
10 ~ 19	402	5,355	96,922	715,556	281,183
20 ~ 49	198	5,765	114,119	839,839	341,444
50 ~ 99	25	1,677	38,034	187,052	92,766
100 ~ 199	19	2,384	52,469	361,863	171,119
200 ~ 299	4	997	25,994	194,724	94,741
300 ~ 499	1	427	6,840	24,705	10,852
500 +	2	3,006	85,392	342,719	198,213

\* 성동구청, 2003. '성동구통계연보'

○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중소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제조업종에서 중소기업 범위는 300인미만 사업장이다. 이 중 소기업은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이며, 중기업은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도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의 제조업종에 해당한다.

이를 적용하면, 성동구의 대다수 제조업 사업체는 중소기업 중 소기업에 해당한다. 또한 소기업 중에서도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68%로 다수를 이루고 있다.

○ 중소기업은 제조업 내에서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의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말 제조업 내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사업체수에서는 97.6%, 종사자수에서는 76.9%, 생산액과 부가가치면에서는 각각 50.6%, 52.8%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성동구 중소 제조업종의 경우도 전국적이 중소기업의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2003년 성동구 통계연보 따르면, '성동구 제조업종 중 50인미만 사업체 규



모별 제조업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총 사업체수 중 50인 미만 제조업체 수가 1,940개의 업체 중 1,889개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비율로 살펴보면, 성동구 제조업종 중 50인 미만 사업체의 비율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50인 미만의 종사자수는 7,854명으로 나와 있으며, 이는 전체 종사자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5] 성동구 50인 미만 사업체 규모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규모별 중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생산액	부가가치
총계	1,940	27,465	526,754	3,421,915	1,520,052
5 ~ 9	1,289	7,854	106,984	755,457	329,734
10 ~ 19	402	5,355	96,922	715,556	281,183
20 ~ 49	198	5,765	114,119	839,839	341,444
50인 미만 소계	1,889	18,974	318,025	2,310,852	952,361
50인 미만 비율	97%	69%	60%	68%	63%

\* 성동구청. 2003. '성동구통계연보' 재구성

### 3) 성수동 제조업 현황 및 특성

○ 2002년 성수동 제조업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6]와 같다. 총 제조업 사업체 중 성수 4개동에 있는 업체의 수는 1,235개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제조업 종사자수는 23,257명으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성동구 제조업체 10개 중 6.5개는 성수동에 있으며, 제조업 종사자 10명 중 8명이 성수동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6] 성수동 별 제조업 현황 (단위: 개, 명, 백만원)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합계	1,894	28,927	3,467,554	1,480,123
성수1가1동	190	2,260	355,106	145,360
성수1가2동	219	3,005	394,325	171,899
성수2가1동	176	2,998	298,804	133,476
성수2가3동	650	14,994	1,890,497	819,384
성수동 소계	1,235	23,257	2,938,732	1,270,119
성수동 비율	65.21	80.40	84.75	85.82

\* 성동구청. 2002. '통계연보' 재구성.

○ 성수동 제조업 업종의 2002년과 2003년의 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 [표-7]과 같다.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동구 제조 산업의 변화는 성수동의 제조산업 변화가 주요한 변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체수, 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등 성수동의 증감 수치가 성동구 전체 산업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39) 40)</sup>

[표-7] 성수동 2002, 2003년 제조업 상황 변화 (단위: 개, 명, 백만원)

구분	사업체수	월평균종사자수	생산액	부가가치	
성동구 총계	2002	1,894	28,927	3,467,554	1,480,123
	2003	1,940	27,465	3,421,915	1,520,052
	증감	△ 46	▽ 1,462	▽ 45,639	△ 39,929
성수동 총계	2002	1,235	23,257	2,938,732	1,270,119
	2003	1,276	22,071	2,879,189	1,520,052
	증감	△ 41	▽ 1,186	▽ 59,543	△ 249,933

\* 성동구청. 2002-2003. '통계연보' 재구성.

○ 사업체 수에 있어서는 2003년에 46개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아파트형 공장의 등장, 벤체업체의 등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종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각 사업체의 불황과 침체로 인해 구조조정, 인력감축 등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즉 영세 제조업 운영의 어려움을 인력감축 등의 경상비 경감을 통하여 유지하고 있다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이는 2002년과 2003년의 총 생산액의 감소가 약 456억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서도 추정해 볼 수 있다.

- 39) 여기서의 성동구 산업의 변화 흐름은 엄밀한 분석이라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러나 성수동이 성동구에서 준공업지역으로서 제조업의 주요 변수역할을 한다는 것은 각종 통계 수치의 양적 비교만으로도 충분히 추정가능하다.
- 40) 참고적으로 한국의 중소 제조업종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제조업 내 중소기업의 생산액 비중은 1990년 42.7%에서 1995년 46.5%, 2000년 47.5%로 확대된 후 2003년에는 50%를 넘어섰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 비중도 1990년 44.3%에서 2003년 52.8%로 증가했다. 특히, 이미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사자수 비중 또한 계속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보고서」. 각년호.)



**(4) 성동구의 주요 경제 시책 현황 및 문제**

1) 성수동 준공업지역 뉴산업단지 개발 계획

○ 2004년 성수동 준공업지역 종합발전 구상 안을 수립  
 서울시와 성동구는 성수동 준공업지역내 IT, BT 등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종합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신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안)"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은 △사업기간 : 2004. 6 ~ 2005. 6 (용역비 : 2억원) △개발방식 : 기존 공업지역 개발 + 뉴타운 방식 △사업수행 주체 : 서울특별시 △개발시기 : 2006년부터 등으로 나와 있다.

서울시와 성동구의 계획은 구로 디지털단지와 같이 성수동 준공업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서울시 뉴타운 개발 방식과 연동하여 추진할 수도 있다.

○ 서울시의 동북부 준공업 지역 종합발전전략 수립(안)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동북부 준공업지역일대 종합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sup>41)</sup>**

□ 추진목표

- 성수동 준공업지역 산업체와 인근 한양대(첨단소재), 건국대(BT) 및 세종대(IT) 등과의 산.학.관 협동체계 및 시범사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상의 산업진흥지구 계획 지정 및 기존 공장지역 재정비계획 마련
- 한강변과 서울숲 주변지역은 강남대안 직·주근접형 고급주택가 조성 및 관리계획 마련 (현재 건축법 제12조에 의한 건축허가 제한 중)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4. 6. 10 ~ 2005. 6. 9
- 위 치 : 성동구 성수동1가2가 및 광진구 노유동자양동 일대(11.2km<sup>2</sup>, 340만평)
- 사업내용
  - ▷ 계획의 배경 및 개념 정립
  - ▷ 관련 계획·제도·현황 등 기초자료 수집·분석
  - ▷ 대상지내 유형별 지구 구분 및 비전 설정
  - ▷ 첨단 신산업단지 조성 관련 사례 조사 및 분석

41) 서울시 도시계획국. '2005년 업무추진계획' <http://urban.seoul.go.kr>.

- ▷ 정비지구(Zone) 선정 및 발전구상 수립
- ▷ 외국인 기업 활동 전략수립
- ▷ 강남대안 지역 정비계획 및 관리방안
- ▷ 종합발전구상 수립 및 계획 실현방안 등 추진전략 마련

○ 총사업비 : 200백만원

□ 세부추진계획

① 연차별계획

구 분	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 동북부 준공업지역 일대 종합발전 구상 및 추진 전략 수립	100%		50%	50%		
사 업 비(백만원)	200		100	100		

② 2005년 계획

구 분	계	1/4	2/4	3/4	4/4
○ 동북부 준공업지역일대 종합 발전구상 및 추진전략 수립	100%				
- 준공업지역 세부 정비전략	50%	25%	50%		
- 주거환경정비 및 상업·학원 정비지구 세부정비 전략	50%	25%	50%		
사 업 비(백만원)	100	50	50		

2) 기타 시책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

2004년 성동구는 중국 상해시에 한양대와 지아오통대 간 협약을 통해 비즈니스 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관내 벤처기업의 중국시장 개척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과 무역 외국어 번역 지원 등 계획을 계획하고 있다.

○ 실업대책 추진

또한 성동구는 구인, 구직 전담반을 구성 및 운영하여 구인, 구직자 취업 관리 및 구인업체 홍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 추진하고 있다.



○ 왕십리역 경원선, 경춘선 중점역화 추진

21세기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금강산 일일관광이 활성화되는 시점을 맞이하여 왕십리역이 서울 동북부 철도교통 중심지역으로서의 역할 증대라는 장점을 활용하여 경원선, 경춘선의 중점역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다. 추진상황은 2003. 12~2004. 4에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4. 6. 21에 건설교통부 등에 정책 제안을 한 바 있다.

### 3. 조사분석 결과

#### (1) 영세 제조업 사업주의 가구 특성

##### 1) 조사 응답자의 특성

○ 조사응답자의 성별, 나이

응답자 총 72명 중 남성은 77.8%(56명) 였으며, 여성은 22.2%(16명) 였다. 제조업종 사업주는 대다수가 남성이다. 연령은 30대-50대가 95.8%를 차지하고 있다. 40대는 34.9%, 50대가 34.7%로 4·50대 중장년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조사응답자의 학력

응답자의 학력은 중졸이하 19.7%, 고졸 64.8%, 전문대졸 7.0%, 대졸이상 8.3%로 80% 이상이 중등학력 이하였다.

○ 면접과정에서 확인해 본 결과 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여 성수동 지역의 공장에 취업하면서 사회활동을 시작했고, 특히 이들 중 다수가 지방 출신이다.

○ 이들 영세 공장이 위기에 처할 있을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어느 50대 금속 사출공장 사업주의 호소이다.

“삶의 터전이 무너질 지경입니다. 오전에 기계 돌리고 나서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제품 주문량이 많지 않아 이렇게 놀고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이렇게 공장이 침체 되면 내 집 팔아야 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나왔을 판입니다. 이리다 아내마저 가출하면... 내가 노숙자로 나왔을 것 같은 불안감마저 최근에는 들 지경입니다. 솔직히 노숙자 분들 그 사람들도 예전에 나처럼 이렇게 공장 운영 하던 분들 많아요.”

#### 2) 조사응답자의 가구 특성

○ 조사응답자의 가족 특성

87.5%가 결혼을 하였으며, 12.5%가 미혼 상태이다. 가구 구성원은 88.1%가 3명~5명이다.

○ 조사응답자의 주거 형태

주거형태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가 8.3%, 전세가 '22.2%', 월세가 '8.3%', '임대아파트'가 2.8%, '자가'가 58.3%로 자가 비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 비율이 높은 것은 오랜 사회 생활을 통해서 '내집 마련'을 이룬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겠다.

○ 조사응답자의 가구의 경제 활동의 특성

주된 생계유지자는 86.2%가 '응답자 자신'이며, 배우자인 경우는 9.7%로 나타났다. 이들 중 부부가 같이 사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즉 배우자가 무급으로 종사하는 경우는 19.4%(총 응답자 72명 중 14명)이다. 따라서 5인 미만 영세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부부가 같이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조사응답자의 가구 소득

응답자의 가구 소득을 살펴보면, 아래 [표-8]과 같다.

[표-8] 조사응답자의 가구소득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내용	100만원미만	12	16.7	16.7	16.7
	200만원미만	24	33.3	33.3	50.0
	300만원미만	22	30.6	30.6	80.6
	400만원미만	7	9.7	9.7	90.3
	500만원미만	3	4.2	4.2	94.4
	500만원이상	4	5.6	5.6	100.0
	합계	72	100.0	100.0	

조사결과, '100만원 미만'은 16.7%, '100~200만원'이 33.3%, '200~300만원'이 30.6%, '300~400만원'이 9.7%, '400~500만원'이 4.2%, '500만원 이상'이 5.6%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50% 가량이 가구 소득이 2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주된 생계유지자가 응답자 자신이고, 배우자가 주된 생계 유지자 아닌 점을 감안하면 영세 사업주 가구의 소득 수준이 상당히 극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답자 중 다수가 자녀나 부양가족을 두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영세 제조업 사업주들은 가정의 경제적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 영세 제조업종 사업주의 가구 특성을 정리하면, 대부분 40~50대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가정에서 주된 생계유지자이다. 또한 이들은 오랜 사회 생활을 통하여 내집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원 내외로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조사응답자의 생활권역과 경제권역

○ 응답자 중 조사 주대상 지역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38.9%이며, 서울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50%,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지를 두는 경우는 11%로 나타났다.

○ 따라서 경제 활동 권역과 생활권의 일치 여부는 그리 높지 않은 것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특히 경기도나 인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경우는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2) 영세제조업 사업장의 특성

### 1) 조사 응답자의 사업경력, 업종 및 규모별 사업체 현황

#### ① 사업경력 특성

○ 응답자 사업경력을 살펴보면, 아래[표-9]와 같다. 10년 이상 경력을 갖고 있는 비중이 56.9%를 차지하고 있으며, 5년~10년 미만의 경력자의 비율은 13.9%, 5년 이하 경력은 29.2%로 나타났다.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9] 조사 응답자의 사업경력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경력 기간	3년 이하	7	9.7	9.7	9.7
	5년 이하	14	19.5	19.5	29.2
	10년 이하	10	13.9	13.9	43.1
	15년 이하	16	22.2	22.2	65.3
	20년 이하	12	16.6	16.6	81.9
	20년 이상	13	18.1	18.1	100.0
	합계	72	100.0	100.0	
합계	72	100.0	100.0		

○ 한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 경력은 10.7년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소기업의 평균업력(50인 미만)은 9.8년, 중기업은 15.8년로 조사됐다. 이와 비교하면, 성동구의 제조업 사업주의 사업경력도 전국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조사응답자의 업종별 특성(성수동, 을지로 지역)

○ 응답자가 종사하는 업종의 종류를 살펴보면, 아래 [표-10]과 같다. 조사의 관심 부분인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인쇄·출판 업종이 30.6%, 금속업종이 19.4%, 제화업종이 2.8%, 기타 제조업이 9.7%로 총 69.5%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응답자 중 약 70%가 제조업의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인쇄업종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조사 수행 단체 중 인쇄노동조합의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응답자에는 서울 중구 을지로의 인쇄업종 사업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제화업종은 상대적으로 많이 조사를 하지 못하였다.

업종들은 원단가공 등의 의류업종, 기계 제조 및 수리, 벨트장식, 키고리, 넥타이핀, 약세사리 제작, 금속 사출 등의 금속업종, 목형, 읍셋, 제본, 톱슨, 마스터 등의 인쇄업종, 여성화 및 남성화 구두 제작, 피혁 제품 제작 등의 제화업종 등이다.



[표-10] 조사응답자의 업종별 종사자 현황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업종	금속	14	19.4	19.4	19.4
	인쇄,출판	22	30.6	30.6	50.0
	의류제조	1	1.4	1.4	51.4
	제화	2	2.8	2.8	54.2
	건설	3	4.2	4.2	58.3
	숙박및 음식	6	8.3	8.3	66.7
	도,소매	9	12.5	12.5	79.2
	운수	1	1.4	1.4	80.6
	금융, 부동산, 사업서비스업	2	2.8	2.8	83.3
	개인서비스	3	4.2	4.2	87.5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1	1.4	1.4	88.9
	기타제조업	7	9.7	9.7	98.6
	기타(업종표시안함)	1	1.4	1.4	100.0
	합계	72	100.0	100.0	
	무응답	0	0		
	합계	72	100.0		

③ 사업체 규모별 특성

○ '임금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 규모를 살펴보면, 아래 [표-11]과 같다. 조사응답자중 89.9%가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이중 0인 사업체는 사업주 혼자 임금노동자 없이 운영하는 자영사업체이다. 이 업체의 비율도 38.9%를 차지하였다. 이는 조사 주체들이 자영사업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주로 악세사리 가공, 바클 가공 등의 금속 가공 업종에 종사하는 곳들이었다.

[표-11] 업체규모(임금노동자)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내용	0	28	38.9	40.6	40.6
	1인	15	20.8	21.7	62.3
	5인미만	19	26.4	27.5	89.9
	10인미만	3	4.2	4.3	94.2
	20인미만	3	4.2	4.3	98.6
	50인미만	1	1.4	1.4	100.0
	합계	69	95.8	100.0	
	무응답	3	4.2		
합계	72	100.0			

○ 또한 등록업체(사업자등록증)는 전체 조사 응답자 72명 중 50개소(69%)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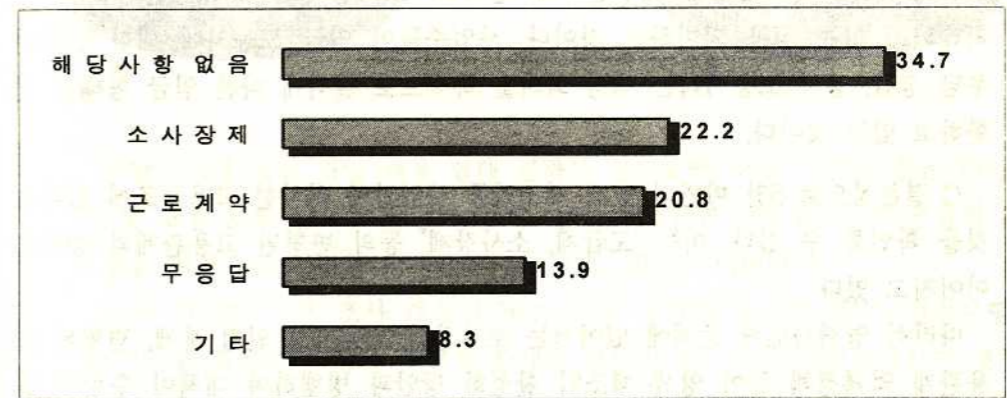
나타났으며, 미등록업체는 19개(31%)로 나타났다. 성동구의 전체 사업체 중 미등록업체가 900여개 이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제조업 공장들이 미등록 상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겠다. 교차 분석을 통하여 확인해 본 결과 미등록 상태 공장은 0인 사업장에서 9개소, 1인 사업장 5개소, 5인 미만 4개소, 20인 미만 1개소, 50인 미만 0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즉 사업체 규모가 적은 제조업종에서 미등록 운영이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 임금노동자의 고용 방식 및 4대 보험 적용 실태

① 영세 제조업 사업주의 임금노동자 고용 방식

○ 응답자의 임금 노동자 고용 방식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1] 조사응답자의 임금노동자 고용 방식



조사 결과,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의 20.8%(15개소)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 중 '해당없음' 속하는 자영 영세업 종사자가 34.7%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낮게 나온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이를 감안하여 근로 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장의 비율을 추정해 보면, 전체 응답자 중 임금노동자를 고용한 1인 이상 사업장의 수, 47개소에 대비해 비교했을 경우 약 32% 정도 나온다.

따라서 혼자 하는 자영 사업주를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종'에서의 정식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변형된 고용 방식인 '소사장제<sup>42)</sup>'도 22.2%(16개소)로 나타났다. 이를

42) 소사장제(Small President System, Intrapreneuring)는 제조업에서는 사업장 내에 근무하던 근로자가 생산라인 또는 생산공정의 일부를 맡아 경영책임자가 되고, 모기업은 소사장에게 생산 현장에 작업장과 생산설비를 설치, 임대해주며, 총무, 세무, 회계, 판매, 기타 대관공



1인 이상 사업장의 수를 제외하여 비교했을 경우 약 30% 가량이 해당된다. 이러한 소사장제는 성수동에서는 제화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수임금제와 병행해서 고용관계가 형성되고 있다. 실제 본 조사와 병행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실태조사'에서도 이는 나타나고 있는데, 총 응답자 459명 중 20명이 소사장제 형태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사장제'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업종은 금속·인쇄·제화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교차 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면, 총 16개의 '소사장제' 응답자 중 금속 2개, 인쇄 7개, 제화 2개소로 총 11개소로 확인됐다. 이중 제화 업종은 모두가 소사장제 형태의 고용관계였다.

○ 이는 영세 제조업의 고용방식의 변화를 함의하고 있는 것이다. 즉 제화업종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개수임금제 방식의 '소사장제'가 금속·인쇄업종까지 확대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이 임금 노동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 경감, 상시 고용이라는 책임 회피를 목적으로 실적에 따른 임금 형태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결론적으로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종 사업장이 취약한 고용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도급제, 소사장제' 등의 변형된 고용관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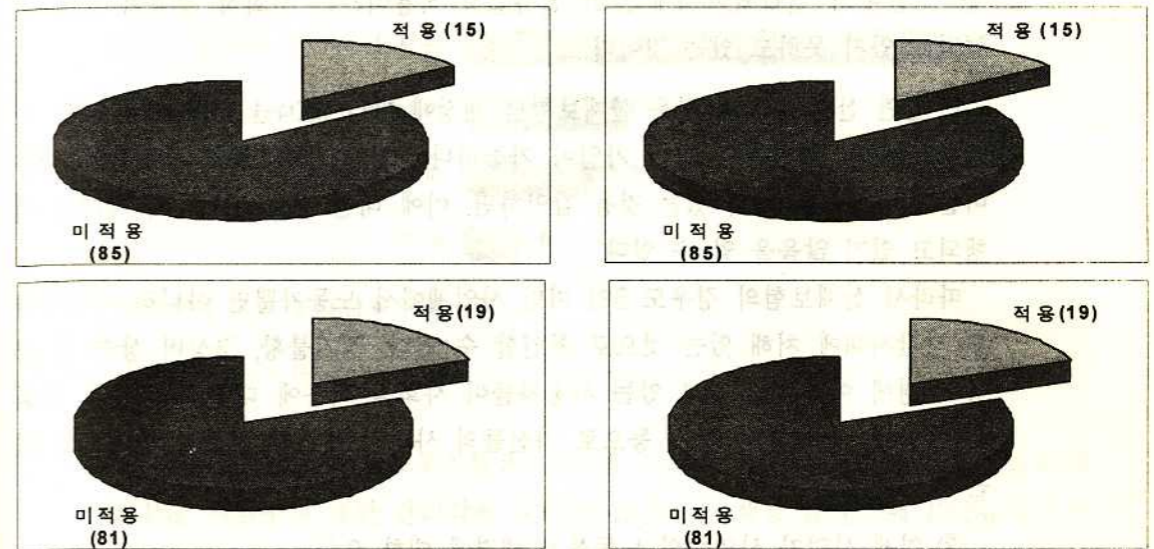
따라서 영세사업체 문제에 있어서는 소사장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변형된 고용관계 억제정책 등이 영세 제조업 활성화 방안과 병행하여 대책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 ② 영세 제조업 사업주의 사업장 4대 보험 적용 실태

○ 조사응답자의 4대 보험 적용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2]와 같다.

사업무를 모두 대행하여 지원하고, 소사장은 생산활동에만 전념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제조업이 아닌 서비스업체에서는 일선 영업현장의 책임자가 예산, 인사, 대리점 관리권등 영업경영 전반에 대한 권한을 사장으로부터 위임받아 행사하는 제도이다. 성수동 사업체중 대표적으로 제화 업종에서 소사장제가 운영되고 있으며 모사업주는 작업공간, 원자재, 장비 제공등을 제공하고 제작 개수에 따라 임금을 제공한다.(개수임금제) 한편 독립채산제는 단일기업 또는 공장·사업부 등의 기업 내 경영단위가 자기의 수지(收支)에 의해 단독으로 사업을 성립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경영관리제도이다. (네이버 지식검색)

[그림-2] 조사 응답자의 사업장 4대 보험 적용 실태(국민-건강-산재-고용 순)



응답자 4대 보험 가입 적용 실태 결과를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은 15%, 산재 및 고용 보험 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주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지역으로 가입한 경우는 각각 50%, 60%로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체 43개소 모두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산재 보험의 경우도 사업장에 적용하지 않은 사업체 55개소 중 1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5인 미만의 사업체였다.

따라서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4대 보험 직장 적용 비율은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또한 자영업자의 경우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보다는 지역으로 가입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교차분석 결과로 '0인 사업장'에서 지역 가입자와 직장가입자를 비교해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지역가입자 15명 vs 직장가입자 3명, 건강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 20명 vs 직장가입자 4명으로 나타났다.

○ 이는 영세 제조업 사업장의 4대 보험 적용 실태가 상당히 심각함을 알려주고 있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사업주들은 경기침체와 인건비 절약을 이유로 노동자들의 대한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으며, 영세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영세업체의 관행이라는 사고에 묻혀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에서는 '지불능력 부족'<sup>43)</sup>, '영세사업장의 관행'과 '경기 침체'가 결합되어 4대 보험 전사업장 적용이라는 사회적 정책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한편 산재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법 개정에 따라 2004년 10월 이후 50인 미만 사업체의 사업주도 임의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주의 산재보험 적용 비율이 19%대로 나와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의 경우도 5인 미만 사업체에서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들도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불황, 경상비 상승 등 공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용자들이 사회적 비용에 대한 지불부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권리를 스스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영세 사업자 사업주의 노동복지 해결에 대한 요구

○ 한편 영세 사업체 사업주의 열악한 노동복지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조사결과 사업주들은 '정부의 지원'을 59.7%,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응답, '노-사인식의 변화' 19.4%, '관행상 불가피' 15.3%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업주들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데 응답이 전혀 없다는 점은 사업주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겠으나, 4대 보험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과 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해 준다.

### 43) 5인미만 사업체의 임금지불 능력(2001년 기준)

(단위 :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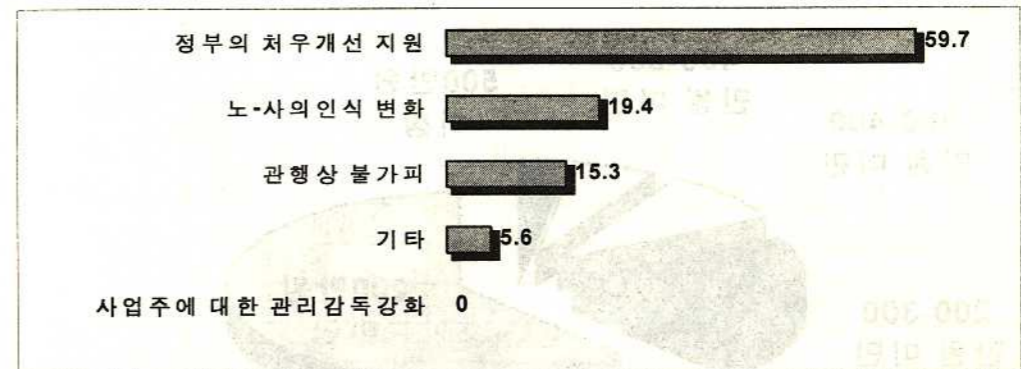
구 분	5인 미만	5인 이상			전 체
		5-299인	300-499인	500인	
월임금총액 <sup>1)</sup>	108.1	161.5	213.5	231.3	175.2

주) 1) 특별급여 포함

자 료 : 1. 노동부, 2002. 「2001년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2. 노동부, 2001. 12. 「2001년 매월 노동통계」

[그림-3] 조사응답자의 '영세사업장 복지 해결방안'에 대한 인식 (%)



○ 동일질문에 대해 노동자들은 '정부의 지원'에 47.6%, '노-사의 인식변화'에 22.1%,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에 15.5%, '관행상 불가피'에 12.2% 순으로 응답하였다. 노동자들도 약 50%가 중소기업 사업장의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 이는 일차적으로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중소기업 사업체의 복지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장기 경기 침체, 중국산의 제품의 유입, 기술력 정체 등으로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종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개별 기업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가 고민해 볼 지점이다.

따라서 정부의 노동 복지 정책이 기업 규모별, 업종별로 차별화 되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5인 미만의 인쇄, 금속, 제화 제조업의 경우와 같이 산업 경쟁력이 갈수록 취약한 업체의 경우 개별 기업에게 사업주의 책임을 묻는 정책은 한계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현행 보험 부담율을 개선하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3) 중소기업 사업체 사업주의 평균 소득 및 부채 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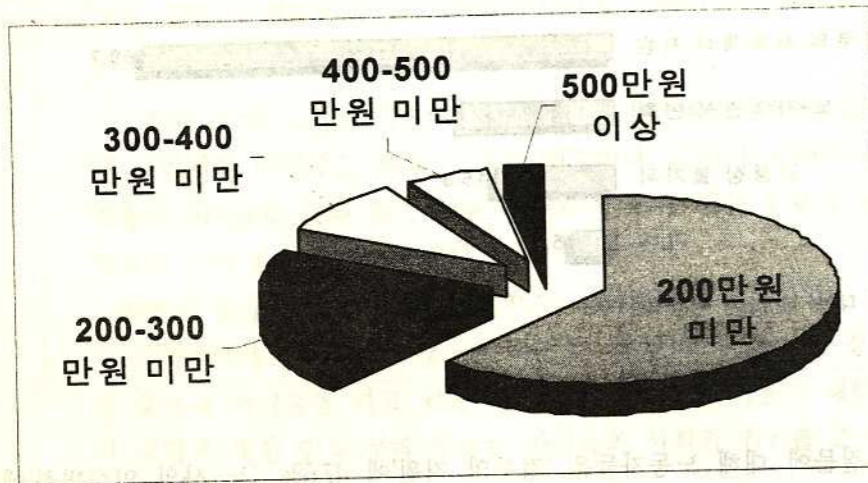
#### ① 중소기업 사업체 사업주의 소득 실태

○ 사업장 운영에서 얻는 평균 소득은 아래 [그림-4]과 같다.

조사 결과, 200만원 미만 소득이 62.3%, 200~300만원 소득이 20.3%, 300~400만원 소득이 8.7%, 400~500만원 소득이 5.8% 순으로 응답하였다. 500만원 이상 소득을 2.8%로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100만원 미만의 소득을 얻는 경우도 21.7%로 나와 있다.



[그림-4] 조사응답자의 월평균소득 분포



○ 이를 전체 노동자 정액 급여 평균 1,408,468원<sup>44)</sup>과 2004년 중소기업 노동자 1인당 월급여총액(정액급여+초과근로수당) 1,457,000원<sup>45)</sup> 등과 비교하면, 5인 미만 중소 영세 사업주의 소득이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5 도시가구의 월평균 경상소득 금액이 299만원<sup>46)</sup>이라는 수치와 비교하면 응답자 80% 가량이 도시 가구 평균 이하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노동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월 113만원대<sup>47)</sup>에도 못 미치는 사업주가 약 27%가 있다는 것은 영세 사업주의 불황과 경기침체가 최근에는 생존적 위치까지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 다음으로 사업주 부채 실태를 정리하면, 아래 [표-12]과 같다.

44) 매월노동통계조사. 2002년. '5인 이상 사업장 상용직 노동자 월 정액 급여 평균'  
 45)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4년.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46) 통계청 KOSIS. '전국 도시가계 경상소득 - '05. 2/4분기'  
 4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005년 최저생계비 기준 참조

[표-12] 조사응답자의 부채 현황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0	10	13.9	19.2
	100-1000만원 미만	4	5.6	7.7
	1000-5000만원 미만	21	29.2	40.4
	5000-1억 미만	7	9.7	13.5
	1억-2억 미만	6	8.3	11.5
	2억 이상	4	5.6	8.5
	합계	52	72.2	100.0
결측	무응답	20	27.8	
합계	72	100.0		

조사 결과, 사업주 평균 부채는 5,457만원(부채 중위값:2,714만원)으로 나타났다. 유효 퍼센트로 살펴보면, '부채가 없는 경우'가 19.2%, '5,000만원 미만의 부채'가 47.4%, '5,000만원 이상 부채'는 33%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 80%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5,000만원 대이다.

② 영세 사업체 사업주의 부채 상환 실태

○ 한편 부채 상환 실태를 살펴보면, 아래 [표-13]과 같다.

조사 결과, '이자만 상환' 44.2%, '원금과 이자 동시 상환' 19.2%, '신용불량 상태' 4.2%, '연체 상태' 3.8%로 나타났다. 원금 이자를 동시 상환 하는 경우는 20% 이하이고, 이자만 상환하는 경우와 연체하고 있는 경우의 합계가 약 50%대에 이르는 것으로 보았을 때,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경우 운영의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더구나 부채의 평균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것을 감안하면 영세 제조업종 사업주들의 운영상에 겪는 고통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

[표-13] 조사응답자의 부채상환 실태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원금+이자 동시 상환	10	13.9	19.2
	이자만 상환	23	31.9	44.2
	연체	2	2.8	3.8
	신용불량 상태	3	4.2	5.8
	해당사항 없음	9	12.5	17.3
	기타	5	6.9	9.6
합계	52	72.2	100.0	
결측	무응답	20	27.8	
합계	72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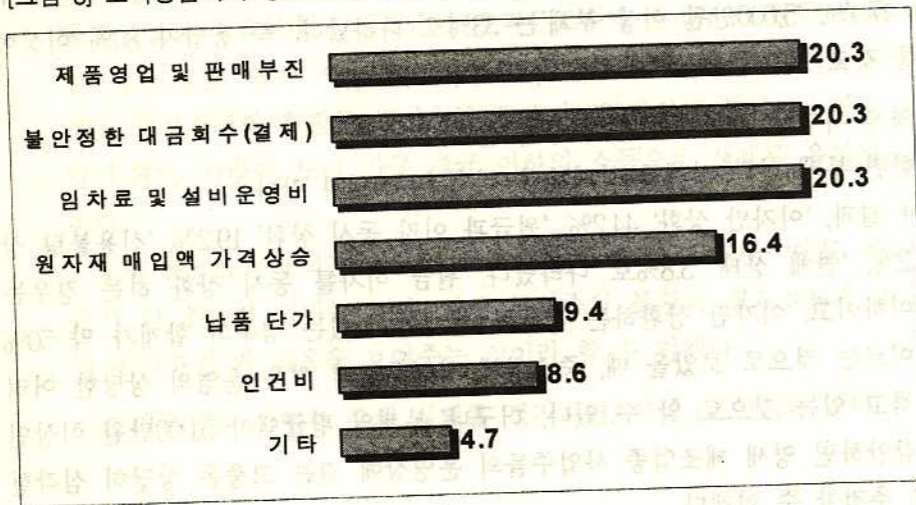
○ 2000년 기준으로 '국민 4,727만명(인구조사 추정치)을 기준하여 국민 1인당 부채액으로 환산해 보면, 개략적으로 350만원이고 4인 가족 기준 1,400만원씩의 부채를 지고 있다'고 한다. 이와 비교해보면 국민 평균 부채액 대비 약 3배 가량 더 채무를 지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더구나 소득수준이 200만원대, 연평균 수입으로 따져 2,400만이라고 한다면, 평균 5,000 만원의 부채는 사업장 경영측면에서나 가정 경제적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일 것이다.

### (3) 영세공장 운영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 1) 공장 경영 어려움에 대한 인식

○ 사업주 고충점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아래 [그림-5]와 같다.

[그림-5] 조사응답자의 영세 공장 운영의 애로점 (중복체크)



사업주들은 공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 문제' 20.3%, '불안정한 대금 회수(결제)' 20.3%, '영업부진 및 판매부진' 20.3%, '원자재 매입액의 가격상승' 16.4%, '납품 단가 문제'에 9.4%, '인건비 부담' 8.6%,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외국인 고용 정책 개선', '일감이 없다(인쇄업종에서 4명 응답)', '중국산 제품 수입 문제', '임가공 단가가 낮은 문제', '구인 문제' 등이 있었다.

조사결과 만으로 보면, 사업장 경상 운영비 문제는 인건비 보다 임차료와 설비운영비가 더 부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건비 문제가

경영상에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기에 는 힘들다.

○ 따라서 영세 공장 사업주들은 경상비의 문제, 제품 판매의 문제, 원자재가 상승의 문제 등 경영상의 이·삼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공장 운영상의 설비비 및 인건비 고충을 겪고 있고, 원자재가가 매입액이 상승하여 제품 마진률이 줄고 있으며, 제품 판매 부진으로 인해 생산 이익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 한편, 면접을 통해 확인한 '중국산 제조품의 수입 증가' 문제는 심각할 지경이었다. 성수동 제화공장에 다니는 어느 소사장의 이야기다.

“이제는 구두업계의 대표 주자인 금강도 가격인하 하는 상황이다. 금강이 올해 50만족을 축소했다. 에스콰이어도 비슷하다고 한다. 금강이나 에스콰이어나 모두 다 이곳 성수동에 있는 제화공장에 하청을 준다. 문제는 이들 대기업이 우리 중소기업에 하청단가 인하를 요구한다. 한마디로 3중고이다. 중국산 들어오지, 대기업은 생산량 줄이지, 거기에 하청단가 인하요구하지... 이렇게 되니 중소기업 일감은 갈수록 감소되고 있고, 우리들의 경우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수임금제라도 선택 안할 수 있겠는가?”

#### 2)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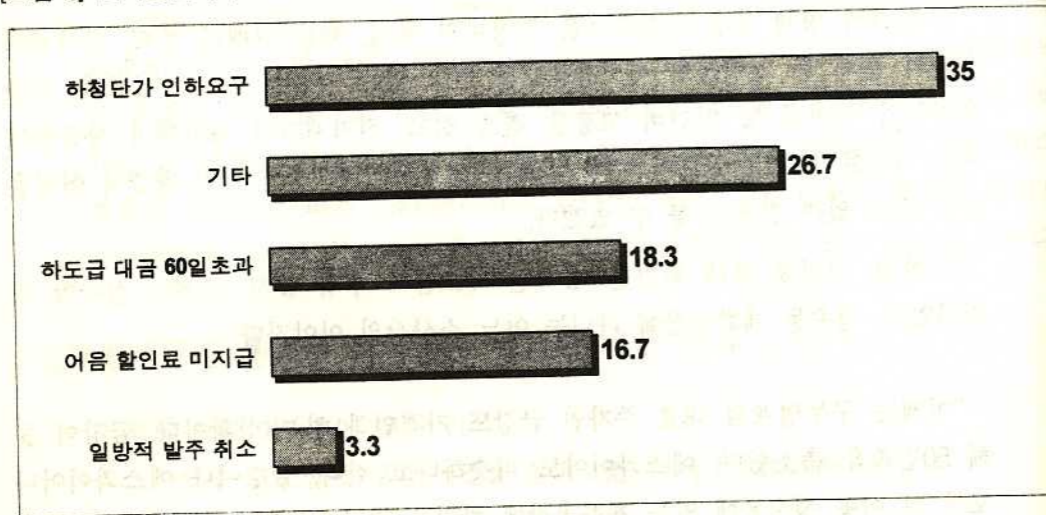
○ 중소 영세 제조업자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 결과는 아래 [그림-6]과 같다.

조사결과 '하청단가 인하 요구' 35%, '어음할인료 미지급' 16.7%,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문제' 18.3%, '일방적 발주 취소'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어음 결제 미이행', '어음 결제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이를 제조업종별로 살펴보면, 교차분석 결과 '하청단가 인하 요구'에 대해서는 인쇄업종과 제화업종에서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쇄의 경우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 총 21명중 10명 약 47% 가량이 응답하였으며, 제화의 경우 100% 모두 하청단가 인하 요구가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응답하였다. 한편 금속의 경우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각 항목별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림-6] 조사응답자의 하도급거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기업간 거래 유형을 중소기업 중심형 업종, 대·중소기업 혼재형 업종, 대기업 중심형 업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 중심형 거래업종에는 섬유, 의류, 제화, 조립금속 관련 제조업종이 해당되고, 대기업 중심형 거래업종에는 컴퓨터 기기, 전기기계, 자동차 관련 업종이 해당되며, 대·중소기업 거래 유형으로 종이 및 종이제품, 1차 금속 산업, 화학제품 제조 업종이 해당된다. (노광표, 2005)

앞서 언급한 거래 유형 중 본 조사의 주대상 업종인 금속·인쇄·제화 제조업종의 경우는 중소기업간 거래 유형에 해당되며, 대부분 2차, 3차, 4차 하청 공장들이었다. 특히 영세 금속 업종에서 심각하였다. 따라서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도급 거래 문제에서 하청단가 인하요구가 심각한 것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겠다.

○ 한편 중소기업중앙협동중앙회 「중소기업애로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문제로 '매년 단가 인하 요구' 46.1%, '대기업의 일방적 발주 취소 및 변경' 22.6%,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지급' 13%, '어음할인료 미지급' 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위 조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모기업의 단가인하 요구가 중소기업 하도급 거래에서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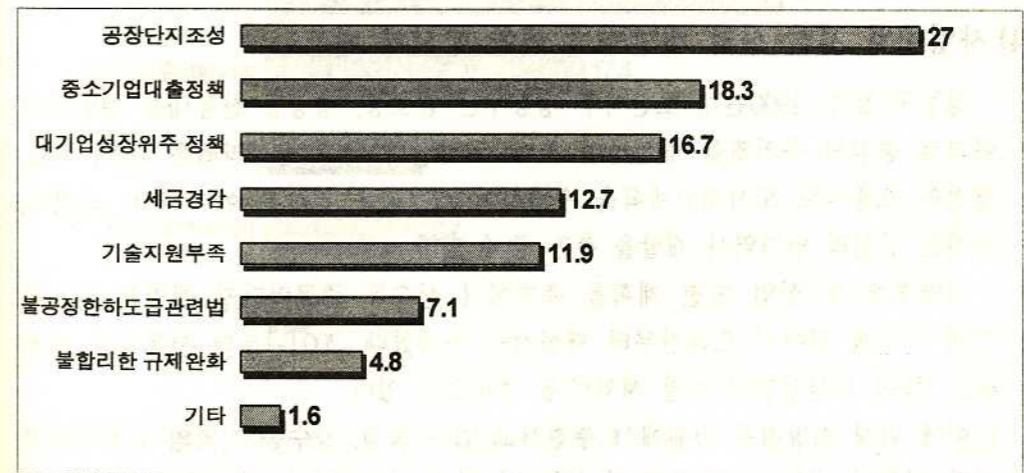
따라서 대기업에 수직 편입된 하청구조가 중소기업간 하청거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국 원청에서 멀어질수록 하청 단가는 낮아지고, 가장 말단인 영세중소 제조업종의 경우 취약한 마진율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005년 6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단가 인하 요구, 생산 기술 요구, 물품 구매 강제 문제, 지속적인 경영간섭,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의욕을 저하, 폐업,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지역경제 붕괴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조승수 의원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의 9대 개선방향으로 (1) 하도급 거래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 (2)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3)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을 금지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하도급 가격 결정체계를 갖추고, 수급사업자의 피해 없는 시정요구 보장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강화 (5) 하도급 대금의 '현금성 결제비율 하한선' 도입, '하도급 대금지급 및 어음기간' 축소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제도 개선 (7) 처벌조항인 과징금, 벌칙, 과태료의 실효성 현실화와 상습업체에 대한 별도의 처벌 및 감시 근거 마련 - 상습 범위만 업체에 대한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제도의 응용 도입 포함 (8) 대등한 하도급 거래 관계 위한 조치 마련 - "노사공동의 감시기구" 설치,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한 내부고발(조사요구)제도" (9) 기타 과제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규제 현황 국회보고 의무화" 등을 제시하였다.

### 3)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한 사업주의 요구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 요구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7]과 같다.

[그림-7] 정부의 중소기업육성정책 개선점 (2가지 응답)





조사결과 '값싼 임대료와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 27%, '현실성 없는 중소기업대출정책' 18.3%, '대기업위주의 성장정책' 16.7%, '세금경감' 12.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부족' 11.9%,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법' 7.1%, '불합리한 규제 완화' 4.8%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출정책 개선 - 담보문제', '공장 등록절차에 대한 문제', '경기침체 문제' 등의 응답이 있었다.

따라서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요구로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정책, 세금 경감, 기술지원 등에 대한 정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의 가장 큰 문제로 알려진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법'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한편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의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소기업 사업주들은 '자금조달 여건 개선'이 55.1%, '불공정 거래 관행 시정' 48.7%, '규제완화' 46.4%, '세금경감' 40.7%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소기업 문제의 핵심이 '하도급거래 관계의 불공정성에 있다기보다 분절된 노동시장의 현실을 이용한 하도급 분업구조 자체와 기업별 축적 방식의 차이에 있으며, 단순히 공정한 거래 규칙을 확립한다고 중소기업의 자립적 발전과 생산성 향상, 노동조건 개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중소기업 노동자의 저임금에 기반한 협소한 축적연관을 탈피한 새로운 발전유형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지적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황선웅, 2005)

#### (4) 사업주의 지역 산업 개발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성동구(청)는 1990년대 초반이후 성동구는 금호동, 행당동 산동네를 개발하여 아파트 중심의 주거권을 형성하여 왔다. 2000년대 이후 왕십리권은 교통, 상업, 행정의 요충지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행정타운 건설은 이미 완료하였고, 현재는 왕십리 민자역사 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경제 및 산업 발전 계획을 측면에서 성수동 준공업단지 개발은 성동구 경제 발전에 있어서 오래전부터 핵심적인 문제였다. 2004년부터 서울시와 성동구는 '특심 뉴산업단지 개발 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에 현재 지방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심, 성수동 지역의 뉴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영세 공장 사업주들의 인지 여부, 인식, 태도가 무엇인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사업주들의 문제의식과 요구를 알

아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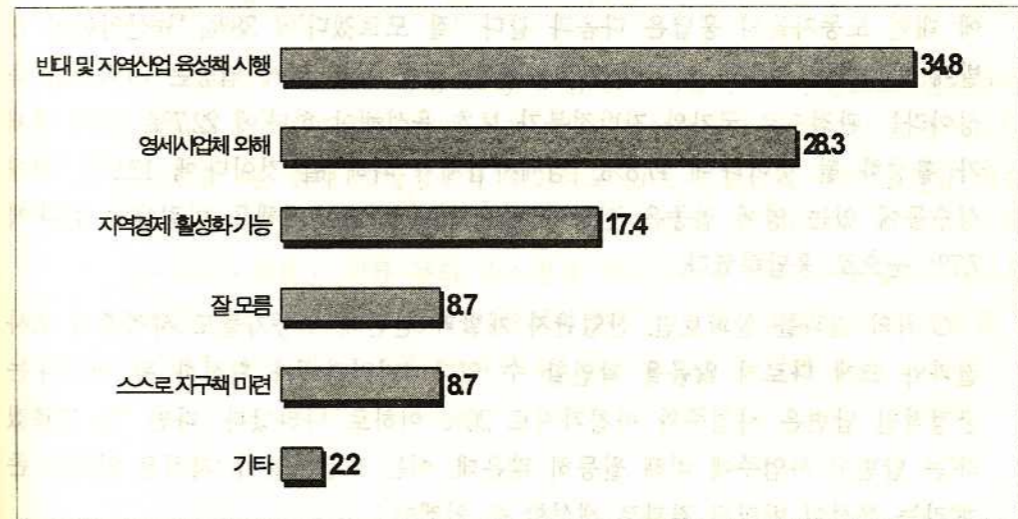
○ 여기서의 결과분석은 성수동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주에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총 72명의 응답자 중 46명(63.9%)의 사업주가 성수동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들 중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업주는 19명(41.3%)이었고, 성수동 영세 사업주중 개발 계획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응답자가 50%가 약간 넘었다.

○ 이러한 낮은 인지도는 대다수의 지역 개발과 마찬가지로 성수동 산업단지 개발도 지방정부 주도, 도시개발업자 주도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주민 참여, 노동자 참여, 사업자 참여 등 당사자 참여를 통한 도시 개발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향후 서울시는 계획안 학술용역이 완료되면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성동구는 그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해당 성수동 지역에서 작은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들이 많은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1)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 계획안'에 대한 인식

○ 성수동에서 영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들의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8]과 같다.

[그림-8] 조사응답자의 뉴산업단지 개발안에 대한 견해



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성수동 지역의 인쇄·제화·금속 등의 영세업종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 해야 한다'에 34.8%, '영세사업체가 와해될 것이다'에 28.3%, '지역경



제가 활성화될 것이다'에 17.4%, '현재 성수동에 있는 영세업종은 전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에 8.7%, '잘 모르겠다'에 8.7% 순으로 응답하였다.

○ 또한 '뉴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2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사업주들은 이러한 개발이 거대 산업 자본 유치만 보장하고 도시개발업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나갈 것이라는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 또한 중소영세 사업주들 중 상당수가 업종 해체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정부차원의 중소영세 제조업종 육성방안'이다.

○ 앞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항목에서, 사업주들은 '공장단지조성'에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연관해서 판단해 보면, 성수동 사업주들은 지역 산업단지 개발이 중소영세 업종 육성 정책과 연동해서 이루어지길 희망하고 있다.

따라서 성수동 산업 단지 개발은 지방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범정부 차원의 중소영세 업종 발전 방안과 연동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도시지역에서 제화, 의류, 금속 등의 제조업종 육성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 한편, 본 조사 항목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살펴보도록 하자. 동일 질문에 대한 노동자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잘 모르겠다'에 38%,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성수동 지역의 인쇄·제화·금속 등의 영세 업종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에 22.7%,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에 17.8%, '영세사업체가 와해 될 것이다'에 12.0%, '현재 성수동에 있는 영세 업종은 전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에 7.7% 순으로 응답하였다.

○ 위의 결과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노동자들도 사업주의 조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는 긍정적인 답변은 사업주와 마찬가지로 20% 이하로 나타났다. 다만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사업주에 비해 월등히 많은데, 이는 노동자들이 '자신은 일하는 존재'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

## 2)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 계획안'에 대한 태도와 입장

○ 영세 사업주들의 성수동 개발 계획안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14]와 같다.

조사 결과, 사업주들은 '영세업종의 생존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운동이 필요하다'에 69.6%, '이전, 폐업, 업종전환 등을 준비하겠다'에 10.9%,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전면적인 반대운동이 필요하다' 8.7%, '관심없다'에 8.7% 등으로 응답하였다.

○ 응답자 약 70% 가량이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사업주들 요구에서도 확인했듯이 사업주들은 좋은 작업 환경과 중소영세 업종 육성 방안과 결합된 지역산업 개발을 희망하고 있다. '이전·폐업·업종 전환 등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겠다'는 응답이 10%에 불과한 것을 감안했을 때, 사업주들의 다수는 현재 지역에서 생산활동이 계속되길 희망하고 있다.

[표-14] 조사응답자의 뉴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대책

구분		응답자수	퍼센트	유효퍼센트	누적퍼센트
내용	전면 반대운동 필요	4	8.7	8.7	8.7
	영세업종 대책 필요	32	69.6	69.6	78.3
	이전, 폐업 등 준비	5	10.9	10.9	89.1
	관심 없음	4	8.7	8.7	97.8
	기타	1	2.2	2.2	100.0
	합계	46	100.0	100.0	

○ 따라서 중소영세 공장의 장기 침체와 더불어 타 업종으로 전환하는데 기술·자금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이 사업주들의 공통적인 고충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바이오산업 위주의 지역산업 육성 방안은 문제가 있으며,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성수동 지역의 금속·인쇄·제화·의류 등의 중소영세 제조업종에 대한 대책 없이 '새로운 산업 단지를 조성하여 지역 경제를 육성하겠다'는 것은 '경쟁력 없는 업종은 퇴출시키겠다'는 것이며, 스스로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는 말과 같다.



#### 4. 결과요약

##### (1) 영세 제조업 공장 및 그들의 가구 특성

○ 응답자 중 70%가 제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주이다. 업종들은 원단가공 등의 의류업종, 기계 제조 및 수리, 벨트장식, 키고리, 넥타이핀, 악세사리 제작, 금속 사출 등의 금속업종, 목형, 읍셋, 제본, 톱슨, 마스터 등의 인쇄업종, 여성화 및 남성화 구두 제작, 피혁 제품 제작 등의 제화업종 등이다.

○ 응답자 중 89.9%가 5인 미만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임금노동자 없는 자영업체 비중도 38.9% 차지하였다. 5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비중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국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평균 업력과 유사하다. 또한 미등록 업체도 38%로 상당히 많은 편이다.

○ 영세 사업주의 평균 소득 수준은 200만원 미만 소득이 62.3%, 200~300만원 소득이 20.3%, 300~400만원 소득이 8.7%, 400~500만원 소득이 5.8% 순이었다. 이는 2004년 중소 제조업 노동자 소득과 비슷한 수치이다. 또한 도시노동자 4인 가구의 최저생계비에도 못미치는 사업주가 약 27%가 있다는 것은 영세 사업주의 불황과 경기침체가 최근에는 생존적 위치까지 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응답자의 평균 부채는 5,457만원(부채 중위값: 2,714만원)으로 나타났다. 80% 이상이 부채를 갖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5,000만원대이다. 부채상황은 '이자만 상환'이 44.2%, '원금과 이자 동시 상환'이 19.2%, '신용불량 상태' 4.2%, '연체 상태' 3.8%로 나타났다. 이들의 소득수준이 200만원, 연평균 수입으로 따져 2,400만이라고 한다면, 평균 5,000만원의 부채는 사업장 운영 및 가정의 경제적 측면에서 심각하다고 할 수 있겠다.

○ 영세 제조업종 사업주는 대부분 40~50대로 결혼을 하여 가정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가 가정에서 주된 생계유지자이다. 이들은 오랜 사회생활을 통하여 내 집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가구 평균 소득이 200만원 내외로 자녀 양육과 가족 부양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영세 제조업종 사업주들은 대부분 남성이며, 40~50대의 중장년층들이다. 또한 이들의 다수는 고졸이하의 중등학력 이하였다.

##### (2) 임금노동자의 고용 방식 및 4대 보험 적용 실태 및 개선 요구

○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사업주가 전체의 20.8%(15개소)로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노동자가 없는 자영 사업주를 제외하더라도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종'에서 정식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는 상당히 취약함을 알 수 있다.

○ 변형된 고용 방식인 '소사장제'도 22.2%(16개소)로 조사됐다. 본 조사에서 '소사장제' 형태로 고용하고 있는 곳은 금속, 인쇄, 제화 업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하여 5인 미만의 영세 제조업종 사업장이 취약한 고용구조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도급제, 소사장제' 등의 변형된 고용관계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 응답자의 4대 보험 가입 적용 실태는 국민·건강보험은 15%, 산재 및 고용 보험 19%로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더욱 심각한 것은 조사 대상인 50인 미만 사업체중 국민 및 건강보험에 대하여 직장 가입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체 43개소 모두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것이다. 즉, 5인 미만 영세 제조업종에서는 '관행'과 '경기 침체'가 결합되어 4대 보험 전사업장 적용이라는 사회적 정책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 영세 사업체의 복지 문제 해결에 대한 사업주 인식은 '정부의 지원'을 59.7%,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무응답, '노-사인식의 변화' 19.4%, '관행상 불가피' 15.3%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주들은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약 50%가 영세 사업자의 복지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 이는 영세사업체의 복지 해결을 위해서는 고용자와 피고용자 모두 정부 지원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 경기 침체, 중국산의 제품의 유입, 기술력 정체 등으로 국내 중소영세 제조업종의 침체가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노동자들의 복지 문제 해결을 개별 기업차원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고민해 볼 지점이다.

##### (3) 중소 영세 공장 운영의 어려움과 정책에 대한 인식

○ 사업주들은 공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임차료 및 설비 운영비 문제' 20.3%, '불안정한 대금 회수(결제)' 20.3%, '영업부진 및 판매부진' 20.3%, '원재재 매입액의 가격상승' 16.4%, '납품 단가 문제'에 9.4%, '인건비 부담' 8.6%,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세 공장 사업주들은 경상비의 문제, 제품 판매의 문제, 원자재가 상승의 문제 등 경영상의 이·삼중고를 겪고 있다. 또한 '중국산 제조품의 수입 증가' 문제는 심각할 지경이었다.



○ 중소기업 제조업자의 하도급 거래에 대한 인식은 '하청단가 인하 요구' 35%, '어음할인료 미지급' 16.7%, '하도급 대금 60일 초과 문제' 11.3%, '일방적 발주 취소' 3.3%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타 '어음 결제 미이행', '어음 결제 없애야 한다'는 응답이 있었다. 본 조사의 주대상 업종인 금속, 인쇄, 제화 제조업종의 경우 대다수가 2차, 3차, 4차 하청 공장들이었다. 특히 영세 금속 업종에서 심각하였다. 영세 제조업 사업장에서 하도급 거래 문제에서 하청단가 인하요구가 심각한 것은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기인한다.

○ 정부 및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대해서 '값싼 임대료,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 27%, '현실성 없는 중소기업대출정책' 18.3%, '대기업위주의 성장 정책' 16.7%, '세금경감' 12.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 부족' 11.9%,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법' 7.1%, '불합리한 규제 완화' 4.8% 등으로 나타났다. 기타 '대출정책개선 - 담보문제', '공장 등록절차에 대한 문제', '경기침체 문제' 등의 응답이 있었다.

영세 사업장 사업주들은 정부에 대한 가장 큰 요구로 좋은 작업 환경을 보장하는 공장단지 조성을 바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 정책, 세금 경감, 기술지원 등에 대한 정부 요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중소기업간 거래의 가장 큰 문제로 알려진 '불공정한 하도급 관련 법'에 대한 불만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 (4) 사업주의 지역 산업 개발안에 대한 인식과 태도

○ 성수동에서 사업주들은 뉴산업단지 조성에 대하여 '뉴산업단지 개발에 반대하며 성수동 지역의 인쇄, 제화, 금속 등의 영세업종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 해야 한다'에 34.8%, '영세사업체가 와해될 것이다'에 28.3%,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에 17.4%, '현재 성수동에 있는 영세업종은 전망이 없으므로 스스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에 8.7%, '잘 모르겠다'에 8.7%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동일한 질문에 대해 노동자들도 사업주의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 뉴산업단지 개발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은 2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당수가 업종 해체의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이들의 가장 큰 요구는 '정부차원의 영세 제조업종 육성방안'이다.

또한 응답자 약 70% 가량이 성수동 뉴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전제되어야 할 것이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업주들 다수는 현재 지역에서 생산활동이 계속

되길 희망하고 있다.

## 5. 조사 결과가 주는 사회적 함의

### - 영세 제조업종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과제

중소기업 사업주는 5중고를 겪고 있다. 첫째, 원청업체의 '단가후리기'로 채산성이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둘째, 비싼 임대료 형태로 건물주, 지주의 불로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중국 등 값싼 외국 공산품에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고 시장에서 배척받고 배회하고 있다. 넷째, 정부와 금융기관의 말뿐인 자금 지원책으로 항시적인 현금 유동성 위기를 맞고 있다. 다섯째, 유일한 수입원인 원청업체로부터 받는 납품 대금은 어음형태로, 할인율을 수익에서 공제해야 한다. 여기에 환경감독, 대출상환 독촉, 주변 상가와 주거지역의 상시 민원, 기술부족, 3D업종 기피, 원청업체의 리베이트와 향응제공 압력까지 자본가라고 하기에는 가련하다. (민주노동당, 2005. '주간진보정치 233호') 오늘 영세 중소기업 사업주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는 '시장 자율'이라는 미명하에 스스로 알아서 살아나라고만 한다. 다 쓴 건전지와 같이 '필요할 때는 잘 쓰다가 이제 필요 없으니 버리는 식'이다.

국내 영세 제조업종의 기술력은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국내 산업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경쟁 가능성이 있는 소수'에는 지원하고 '경쟁력이 이미 검증된 다수'는 '글로벌 시장경쟁 체제'에 맞지 않기에 배제하는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 (1) 영세 제조업종 보호를 위한 과제

##### 1) 참여 정부의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

○ 참여 정부는 중소기업 부실에 대처하기 위해 2004년 7월 7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를 2005년 중소기업청의 연두업무 계획에서 구체화 하였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기조로 설정하고, 3만개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핵심 과제로 설정하였다.<sup>48)</sup> 한마디로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과거의 보호조치를 단계적으로 폐지하여 시장원리에 입각한 구조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48) 중소기업청, 2005. 「연두업무계획」



○ 이러한 참여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대해 노광표는 다음과 같이 그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첫째, 한국 중소기업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 즉 불공정 거래 관계 및 중소기업 금융지원체제의 개선방안이 뚜렷하지 않다.

둘째, 3만개의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전략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외의 중소기업은 구조 조정 즉 시장 퇴출 정책이라는 점이다.

## 2) 영세 중소 제조업체 보호 육성 방안

### ① 범정부차원의 50인 미만 중소 제조업종에 대한 심층 실태조사 실시

○ 현재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정부나 연구기관의 조사는 대부분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대부분 양적 통계 조사에 머물러 있다. 사업체 규모가 50인 미만인 소기업에 대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세 중소 제조업체 정책 수립에 앞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실태조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

○ 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행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에 한정되어 있다. 특히 50인 미만의 소기업들은 공정거래 관계의 사각지대에 처해 있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하도급 거래 적용 제외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하도급 거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표준 하도급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활동이 강화되어야 한다.

○ 제품을 납품하는 영세 제조업체 사업주의 가장 큰 하소연은 원청의 단가인하 요구였다. 경쟁력이 없는 영세업체의 경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원청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언급 했듯이 정부의 법률과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지역내 동종 업종간의 '수탁기업체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원청과 교섭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영세사업체가 밀집한 지역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같은 영세 제조업체 및 사업체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만들어 원-하청 거래 감시, 하청 거래 감독, 및 각종 중소기업 관련 지원 사업등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 확립에 대한 정책과 제도개선에 노동자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영세 중소 제조업종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제

### 1) 서울지역의 산업단지 조성 사례 - 구로 디지털 단지의 사례

구로구는 준공업 지역으로서 서울 서남권의 대표적인 공업도시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한국수출산업공단(구로공단)의 설립과 함께 수출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최근에는 제조업 중심의 구로공단이 2000. 11월 서울디지털산업단지로 명칭이 개명되고, 국내 벤처집적시설 1호인 키콕스(KICOX)벤처타운의 입주를 계기로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디지털 산업단지로 전환하였다.(구로구 홈페이지)

구로 디지털단지는 2005년 5월 현재 입주 업체수 3,632개, 종사자 수 55,000명의 산업단지로 과거에 비해 양적 팽창이 이루어졌다. 단지는 3개단지로, 1단지는 소프트웨어(SW) 단지, 2단지는 의류·패션 단지, 3단지는 제조업 단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1단지를 제외한 2·3단지는 첨단 IT 업종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으며 1단지에 비해 성장속도도 느리다고 한다.<sup>49)</sup>

즉 구로디지털 단지는 전통적인 제조업 단지가 첨단 산업단지로 부분적으로 전환한 케이스이며, 명칭은 첨단 산업단지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는 의료업종, 제조업종의 혼합형 산업단지로 전환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중앙 및 지방정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IT업종에 한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 2) 서울 동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과제

#### ① 산업단지 조성의 필요성

○ 본 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듯이 영세 중소 제조업 사업주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가장 큰 요구는 생산 활동 여건 조성, 즉 공장단지 조성이었다. 본 조사의 주대상지역인 성수동은 서울 동북부의 준공업 지역으로서 서울의 대표적인 금속, 인쇄, 제화 등 영세 제조업종 밀집지역이다. 현재 서울시의 '서울 동북부 준공업지대 종합 발전 계획 안'과 맞물려 향후 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사업주들은 '지역산업 육성이라는 관점으로 국가와 지방정부가 보호 육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49) 디지털타임스. 2005년 7월 11일자. '구로 디지털밸리를 가다'



○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 동북부지역 산업단지 조성 계획은 전통적인 제조업종 육성 방안과 연동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제조업종 퇴출 방식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구로 디지털 단지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첨단단지'라고 표명은 하지만, 실제로는 혼합형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졌다. 또한 산업단지 조성의 우선순위에서 제조업종은 배제되고 있다.

#### ② "첨단-전통이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의 방향

○ 성수동을 중심으로한 동북부 지역의 경우 충분히 산업단지 조성의 가치가 있다. 서쪽으로는 국내 의류·패션·피혁 유통 최대 단지인 동대문 패션 타운과 국내 인쇄업종 최대 밀집 지역인 을지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첨단 디지털 유통 단지인 테크노마트가 위치하고 있다. 또한 남으로는 첨단 IT 산업의 메카인 테헤란밸리가 위치하고 있다. 각각의 지역은 성수동에서 30분 이내에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는 편이다.

○ 성수동의 산업단지 조성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인 제조업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에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인근지역의 의류, 피혁, 출판 유통 체계와 연계해서 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위에 점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해야 한다. 금속, 인쇄, 제화, 의류 등의 제조업종에서의 생산 활동 여건을 마련해 주고, 각종 기술, 금융, 세제 등의 지원 정책과 결합하여 중소영세 제조업종의 발전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 따라서 성수동 준공업지대의 산업단지 개발은 "첨단-전통의 조화"가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대변화에 조응하는 방향과 전통적인 제조업종의 경쟁력 확보라는 양자를 모두 충족하는 방향에서 단지 조성이 추진되어야 한다. 산업단지 조성을 ㉠ IT·BT 등의 첨단 산업단지 ㉡ 의류·제화, 악세사리 등의 패션제조업 단지 ㉢ 출판·인쇄 등의 제조업 단지 ㉣ 물류 유통 단지 등의 형태로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덧붙여 단지 조성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중소영세 사업체에 대해 저렴한 임대료와 생산활동 기반처리 시설을 갖추고 이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있게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 ③ "환경-공공노동복지"가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

○ 산업단지 조성은 각종 환경 및 위해 요인으로 인해 지역 주민의 심각한 반발을 야기할 수 있다. 주택가 인접 지역은 비공해 업종 단지를 조성하고, 소음 및 유해 물질을 다루는 업종의 경우는 환경 정화 시설과 유해요인 차단 시설을 제대로 갖춘 단지조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생활-생산'이 조화되는 산업단지 조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단지 조성과 동시에 영세 사업체 노동자의 복지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노동자 자녀 보육, 노동자 의료지원, 노동상담, 직업훈련, 노동자의 여가 휴식 등 복합적인 노동복지 기능을 할 수 있는 '근로자복지지원센터'가 산업단지 조성과 동시에 계획되어야 하며 또한 영세 사업체 노동자의 주거복지를 위해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건립되어야 한다.

○ 또한 단지 입주 조건에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는 업체 규정을 두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

#### ④ 성수동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의 과제

○ 성수동 산업 단지 조성 계획은 본 궤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는 2005년 9월에 학술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이후 법적, 제도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안에 '00업종 협의체', '지역 업종간 협의회' 등 지역 영세 사업주의 대책 모임 등이 필요하다. 특히 사업 규모가 작은 영세 사업주의 경우 지역 상공회나 지역 중소기업협회에 소외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구책을 만드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에 대해 교섭력과 협상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 지역노동조합은 산업단지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산업단지 문제는 개별 노사관계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의 노동자들이 단결하고 연대해야 할 사안이다. 노동자들의 자주적 요구를 모아 지역산업에 대한 개입을 해야 하며 단지 조성에 따른 주거, 환경, 복지 과제도 정부에 요구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 자신들의 생산 활동 지역을 노동자들 스스로 지켜내고 만들어간다는 적극적인 관점이 필요하며, 노동조합에 여기에 복무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사회권·생산권 쟁취 운동 이미 임박한 과제이다.

### 3. 영세 사업장 4대 보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제

○ IMF 국제구제금융체제 이후 사회안정망 확충의 필요성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 제도가 급격히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에서는 취약한 임금 지불 능력에 의해 4대 보험 적용 사업장이 1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4대 보험 전사업장 확대라는 정부 정책이 구호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상당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 영세 제조업종들이 급격한 경기침체와 운영상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각 보험제도에 사업주 지원 사업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공장은 보험료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사업주 지원과 관련한 것은 고용보험상의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산재보험제도의 5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특례가입 제도 등에 불과하다. 더욱이 이 또한 영세 사업주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행정지원 등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보험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다.<sup>50)</sup>

○ 따라서 기업규모에 따른 4대 보험률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의 경우 지불 능력이 극히 취약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는 본 조사에서 사업주와 노동자 공히 영세 사업장의 복지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에서도 확인됐다. 따라서 현행 보험료를 적용 비율에서 정부 부담분을 적용하여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보험료 산정을 정부 부담분을 추가하여 사업주와 노동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50) 중소기업협동중앙회. 2002. '중소기업 정책과제-차기정부의 60대 중점 추진과제'

□ 참고문헌

노광표. 2005. '중소기업의 구조적 문제와 노동친화적 대안모색'  
 「중소기업실태와 구조적 문제 중간발표 자료」. 진보정치연구소  
 노동부. 2002. 「2001년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조사」  
 노동부. 2001. 「2001년 매월 노동통계」  
 디지털타임스. 2005년 7월 11일자. '구로 디질털벨리를 가다'  
 민주노동당. 2005. '주간진보정치 233호'  
 서울시 도시계획국. '2005년 업무추진계획'  
 성동구청. 2002, 2003. 성동구통계연보  
 성동구청. 2004. '성동구청백서'  
 황선용. 2005. '한국 중소기업부문의 실태와 구조적 문제:기업규모간 양극화의 실체와 원인' 「중소기업실태와 구조적 문제 중간발표 자료」. 진보정치연구소  
 조승수의원실. 2005. 「중소기업 불공정 하도급 거래 실태 보고 및 개선 방안 토론회」 자료집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2004. 「중소기업 애로실태조사 종합보고서」  
 통계청. 2003년.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 2 부

1.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137
2. 주장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과 희망을 위하여 170
3. 실태 조사 참여자의 후기 176
4. 상담사례 183
5. 자료사진 184
6. 함께 한 사람들 186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하나

이 름 : 차○옥 (37세), 여

가 족 : 아들(중2, 15세), 딸(초6, 13세)

인터뷰 : 2005. 9. 26 저녁 7:30 자택

나이는 만으로 36입니다 가족은 아들하나 딸 하나이고요. 아들은 15살 딸은 초등학교 6학년 13살 3식구입니다. 생활비는 직접 다 벌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라벨 만드는 일이에요. 저는 주로담당이 고무라벨이라고 불에 구워서 익혀서 손으로 액으로 하는 것이라 판 조각에 부어서 입히면 고무가 되는 것이에요.

라벨의 종류에는 고무에서 가죽까지 다양하게 있어요. 주업종이 인쇄업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닌데, 인쇄를 포함한 라벨도 있어요. 전체 15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10명 정도 일하고 있구요. 여름에 많이 썼는데 지금 많이 나갔어요. 가을철 되면 일거리가 뜸하고, 여름만 쓰고 가는 것이죠. 임시로 계절 따라 일하고 있어요. 여름에는 주문량이 많이 들어와서 임시로 뽑아서 일해요. 성수 역에서 뚝섬사이에 있어요. 일은 교회서 아는 언니가 소개해주었어요. 지금 만으로 3년째 일하고 있어요. 여성 중에서 제가 제일 오래되었어요. 사람들이 자주 바뀌어요. 1년에 오래가면 1년까지 가기 힘들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 1년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일이 좀 까다롭고, 여름에는 작업환경이 안 좋아서 더워요. 불에 200도에서 익히는 일이라. 전기를 많이 쓰는 일이라 그리고 에어컨을 틀면 전기용량이 부족하고, 열 발생 때문에 조건이 맞지 않아서 선풍기만 켜놓고 일해요.

하루에 9시 출근해서 저녁 7시에 와요.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총9시간 일해요. 여름에는 잔업을 1주일에 2-3번을 했어요. 일거리가 여름 지나면 없어서 요즘은 거의 안해요. 여름에 할 때는 밤 10시 까지 해요.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연장수당은 없어요.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금액변동은 없구요. 하루 야근하면 1만원 그냥 책정되어있어요. 사장님 마음대로 해요. 1시간당 3천 몇 백 원 정도예요. 토요일은 4시까지 일해요. 점심하고 야근할 때 식사는 먹어요. 3년 됐는데 임금은 처음에 70만원 받았고, 1년 지나고 80만원 정도 받고, 2년 되서 85만원 올라갔고요. 거



의 1년에 2번이라는데 5만원씩 그때그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받는 금액은 저번 달부터 95만원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공제가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은 정식직원이라고 하지만 임시직처럼 공제 없이 그냥 줘요. 그리고 일하는 것 봐서 임금 올려준다고 해요. 근로계약서 같은 것은 안 썼고요. 퇴직금도 처음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없다고 했어요. 여태까지 입사한 이래 퇴직금 받은 사람 없어요. 여기가 6년인가 되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전에 1년 넘은 사람이 없었고, 3년 된 사람 한명 있었는데 외국사람이라 그냥 갔어요. 그냥 흰 봉투에 이름만 적어주고, 어쩔 때는 사모님이 까먹었다고 야근한 것 1~2개 빠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때 적어서 따져야 받아요.

제가 제 이름으로 올릴 수 없어서 언니이름으로 일하고 있어요. 지금 카드 빚이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있어도 따지지 못해요. 제 이름으로 올려도 임금은 차익 없어요. 여름에 일하는 그런 임시직은 아니지만, 임시직과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임금차이는 없어요. 보너스도 똑같고 오래된 사람이나 차이 없어요. 5만원이나 15만원 떡값도 줘요. 요번여름에 추석에 15만원 받았어요. 이것도 안주면 어쩔 수 없어요. 월차 연차 생리휴가 그런 것 없어요. 미리 얘기해도 우리가 일을 안 하게 되면 하루치가 빠져요. 3만원 넘게 빠져요.

아플 때 빠져도 하루치 빠져요. 사회보험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니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몰라요. 내고 있는 것이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가입되어있는 것 없어요. 기초생활보장을 나라에서 2급으로 받아서 의료보장을 받아요. 회사가 몇 명 안 되서, 다친 것에 드는 것과 고용보험은 회사에서들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까지 회사에서 다친 적은 없었어요. 위험하진 않는데 불에 데어서 상처 난 것 많이 많아요. 일자리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집과 가까워서, 처음에 일자리를 구하려 다니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오토동안 구하기 힘들고,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 있으면 옮기고 싶어요. 아직까진 그런 일자리가 없어서 당분간 다닐 거예요. 다른 수입이 없어요.

한달에 지출하는 비용 중 애들 학원비가 많이 들어요. 둘이 합쳐서 40만원 들어요. 큰아들은 중학생이어서 책값하고 23~25만원 들고 딸에는 15만원 들어요. 거의 매달 책값 문제지 값이 들어가요. 그래서 40만원이에요. 다른 데는 다닐 수가 없어요. 그것 하나라도 벽차서요. 다른 데는 지출이 없고요 조금씩 저축하고 있어요. 한달에 30만원

정도. 나머지로 세금하고 생활비로 다 써요. 공교육비는 기초수급이니까 다른 데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나마 다행 이에요. 딸하고 아들하고 혜택 보는 것이죠. 애들 교육하는데 보수가 적어서 남자들 같은 경우 나같이 일하면 조금보수가 올라갔을 거예요. 여자라고해서 5~6만원 차이가 있구 빨리 안 올라가요. 여자라고하면 보수가 조금 약해요.

저 같은 경우 제가 가장인데 회사에서는 그게 안 통하니까.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죠. 자녀교육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의 금액이 적어서 교육하는데 어려워요. 세 사람 사는데 제가 따로 쓸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저축만 안 해도 크게 어렵지 않을 텐데, 집이 현재 나라에서 보조를 받으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저축을 해야 나중에 방 한 칸이라도 월세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 다른데 보면 보너스 40만원 50만원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수익 오르면 따라서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 아무리 많이 남는다 해도 그런 비율상이 없어요. 여름 같은 경우 더워도 성과급이라든가 회식이다 이런 것이 없어요. 얘기하면 사장이 나가라고 하니까 얘기를 못해요.

4~5년이면 조그만 전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500만원에서 3000만원정도 올해 혜택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4~5년 걸려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없어야 되요.

지금 신용불량 상태예요. 처음에 1~2천이었는데 지금 4천까지 불렸어요. 한국자산에서 어려운 사람들은 접수하면 기초생활대상자였을 때 본인들이 갚아준다고 하고 기초에서 벗어날 때 10년 한도로 갚을 수 있다고 해서 신청 했구요. 또 1천정도 있어요. 제가 쓴 것은 아니고요. 남편이 이렇게 썼어요. 함께 살 동안에 대출 받은 것 400만원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이혼 후에 카드를 놓고 왔는데, 지금은 이혼하고 난후에 몇 년 뒤에 보니까 이렇게 불려서 왔어요. 모르는 부채가 많아요. 우선은 애들 키우는데 집중해야 하고 빚은 한도 끝도 없고 그래서 일단 미뤄 둘 때까지는 보류한 상태예요. 지금 여기 살면서는 부채는 없는데 감당이 안돼요.

전보다는 조금씩 나아진 것 같아요. 1-2년 사이에 조금씩 저축하고 있고 아이들도 크고요. 아주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 갈 때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회에 나오니까 여자이고 이혼하고 하니까 혜택 받는 것도 힘들고 무시도 당하는 것도 많았고, 그런 것을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금전이 필요하죠. 일한 만큼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9시간을 서서일하고 어려운 단계를 일하는데, 거의 9



시간서서일하고 힘든데 화장실 갈 때 말고는 쉬는 시간이 없이 일해요. 일한만큼 보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하고 돌아오면 가사 일을 해야 하니까 힘들니까 집에 와서 자는 시간외에는 쉬는 시간이 없어요.

퇴근시간이 한 시간만이라도 당겨진다면 좋겠어요. 문화생활은 없어요. 바쁘니까. 집에 빨리 와서 밥하고, 먹고, 애들하고 조금 얘기하고 TV 보는 것 외에는 없어요. 아들이 시험 때면 늦게 오는데 너무 힘들어서 어떨 때는 누워서 오는 것 맞을 때도 있어요. 혼자서 밥 챙겨 먹고 그래요. 노동조합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동조합이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주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랑 먹히는 것이 다를 것 같아요. 조합을 통해서 힘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특히나 더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정확하게 8시간일해라 어떤 규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너스 등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 분야에 일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규정이 되어있는 조건이었으면 좋겠어요. 노조가 주어진다면 찬성하죠.

작은 사업장이라서 어려움은 저도 이해하죠. 세금에 있어서 규모에 상관없이 똑같이 때리는데 운영하는 분들은 힘들 것 같아요. 회사지원에 있어서 작은 규모에 대해 일에 대해 지원해주면 운영하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우리를 내 몰지 않을 것 아니에요. 나라에서 지원 해 줄때 작은 사업장에 지원해주면 우리도 똑같은 혜택을 받지 않겠어요. 월급 날짜를 제 때 받은 적이 없어요. 월급 받을 때면 사모님이 거래처에 막전화해야 받아요.

경수동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외국인들도 많이 살고요. 우리 같은 경우는 먹고 자는 것이 제일 힘든데 잘 곳 없는 외국인들 많이 봤어요. 방값이 비싸서. 임대아파트 이런 것이 생겨서 가장 어려운데 있어서, 우리 같은 어려운 사람들이 쓰지 않는 물세 등 한가구당 사람이 많이 산다고 해서 주인이 관리하는데 차이가 많아요. 임대아파트면 그런 것이 개인적으로 해결되니까. 주거환경이 안 좋아서 곰팡이 피고 이렇게 사는데 임대아파트가 있어서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어요. 저는 집이 제일 걱정이예요. 애들 데리고 나가 살 수 없잖아요. 넓고 작는데 구분 없이 방2칸이면 밭 펴고 누울 수 있는 곳 있으면 좋겠어요.

이 결과가 진행돼서 진짜 행동으로 보여 줄 수 있는 눈에 보여지면 좋겠어요. 저희한테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들

이 름 : 황○관 (49세), 남

가 족 : 부인, 아들(초등 5학년, 6학년) 둘

인터뷰 : 2005. 9. 15 저녁 7:30 인쇄노조사무실

인쇄 쪽 소부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인쇄의 처음단계죠. 인쇄일은 30년 되었죠. 아는 사촌형이 제판계통에 있어서 하게 되었어요. 80년대 초였어요. 그때나이가 군체대하고 4년 있다 올라 왔으니까 26살 정도쯤. 원래 인쇄계통은 프레스작업, 인쇄의 코팅작업을 하다가 사촌형을 통해 제판을 하게 되었죠.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래도 그 바탕에서도 소부실이 임금이 조금 낮다고 해서 들어와서 하는 건데, 그래봐야 제가 다니면서 학교를 다녔으면 어떻게 대기업에 다녔으면 낮지 않았을까. 숙련공이나 초보나 옛날에는 차이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별 차이 없이. 그리고 소부실 같으면 6개월서 1년만 배우면 어느 정도 단계를 들어가니까. 옛날처럼 아라비아 판(인쇄판)이나 일반 판(인쇄판)이 아니고 지금 PS판이라 숙련공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책임자하고 중간단계가 무너지고 초보자에서 바로 써버리니까.

처음에 사촌형에게 배웠기 때문에 달에 5만원 임금 받았어요, 70년대 말 80년대 초니까 적은돈은 아니죠. 중간단계가 무너진 것은 PS판들어가면서 무너졌어요. 일반 판 일 때는 약품을 다 타서(만들어) 쓰고 재고서 했는데, 지금은 약물도 다나오고 빛과 시간 약물 나온 것만 맞추어서 하면 초보도 가능해요. 지금은 굉장한 숙련공이라도 나아진 것이 없어요.

임금은 기계는(기계 다루는 사람) 180(만원)정도 소부나 제판은 150(만원)정도, 거기다 수당 20(만원)정도. 수당은 잔업수당 철야수당 이에요. 직책수당은 150(만원)에 20만원 정도 따라와요.

평균임금은 그건 나름인데, 평균하면 200(만원)에서 세금 빼고 하면 180(만원)정도. 겨울 같으면 일이 많으니까 세금 빼면 220(만원)정도, 여름 같으면 일이 없고 정상근무하면 150(만원)에서 세금 빼고 130(만원)정도 되요. 직원 있는데(회사)는 인쇄 계통 있는 사람들 좀 직원 있는 데는 수당으로 따먹기 때문에, 연봉제로 하면 일을 많이 늘려



요. 야근철야근무가 많아져요. 수당을 안주고 똑같이 주니까.

시간외수당은 야근하면 50(%) 철야하면 100(%) 하루일당의 50, 100으로 일정하게 정해진 거예요. 하루 일당이 저거로 따지면 150(만원)이면 5만원 아니에요. 50(%)이면 25,000원 100(%)이면 50,000원이죠.

우리 회사 같은 경우 아침 9시출근해서 저녁 6시 퇴근이에요. 정시예요. 야근하면 8시 30분, 철야하면 원래 (새벽)1시까지인데 집에 가는 시간배려해서 12시 30분에 가요. 원래 야근하면 9시 가는데 우리가 30분정도 빨리 가요. 다른데(회사)는 철야하면 원래 (새벽)2시까지예요. 회사가 일산이어서 일찍 가요. 대신 낮조 하는 사람은 일찍 오죠. 정시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야근철야계산하면 겨울에는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일 량이 적어서 들어오는 대로 일을 다해줘요. 토요일도 똑같이 6시까지 일해요. 사무실 저거를 보면서 우리 재량 것 5시에 나가기도 해요.

대략 직원이24명 되요. 읍셋, 제판, 소부실 이렇게 세 파트 예요. 24명은 일산에서 아주 큰 규모는 아니고 중간보다 좀 큰 데예요.

이 회사는 3년 다녔어요. 이전에 다니기 바로 직전의 직장은 마포 만리동 이었는데, 경리1명 읍셋기장 1명 소부실에 나 하나, 3명이예요. 일 량이 없고 소부할일이 없어서, 옛날처럼 필름을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자체에서 다해오기 때문에 기계가 1대여서 소부실이 할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만 두었죠. 지금 일 하는 데는 마포에 비하여 안정적이죠.

지금현실에서 나이도 있고, 어디 나가서도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없고, 다른 것에 손도 못 대보고. 여긴 퇴직금 있으니까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아직 회사에서 필요 없다고 나가라고 잘 안하는데, 내가 힘이 들고 눈이 침침할 때까지는 다닐 생각이예요.

그러면 퇴직금 쌓고 조그만 구멍가게라도 낼려고. 이전에 퇴직금이요? 을지로에서 조그만데 몇 명 안 되는 영세기업에서 일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퇴직금 개념이 없었죠. 그런데 다니다가 그래도 직원 20여명이니까 여기는 안정적인 것이죠. 집에서는 생활하는데 계획이 잡혀있어서 생활이 좀 융통성 있게 돌아가요.

지금은 임금보다도 일 량이 없으니까 잔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잔업이 없으면 130(만원)가지고 가서, 애들 둘 키워가며 공부 가르치고 학원 보내고 하면, 아직 안 된다고 생각해요. 다른 데(회사)는 상여금 같은 것 안나오는데 여기는 그래도 상여금 하나만큼은 직원 힘들게 일하는 것 알고 나와요. 1년에 200%예요 그것도 150%에서 작년에 상여금문제로 안 좋은 일 있어서 50% 올랐어요.

추석에는 75% 받아요. 내일모래 추석인데 받아야죠. 150(만원)에서 75%면 100만원 나오는데 어떻게든 빼팅겨야죠. 생활이 어느 정도 쪼였던 것이 풀린다는 것이죠.

다른 복지는 모르겠는데, 아줌마들한테는 여성들의 생리휴가가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연차는 없는데, 월차는 있어요. 그런데 거의 내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수당으로 받죠. 어쨌든 벌러 나온 사람들인데, 하루 쉰다고 크게 저거 아니니까, 몸이 아프면 사무실에서 배려해서 병원 가니까, 웬만하면 다들 쉬지 않아요.

일이 너무 없을 때 그냥 놀리기 그러니까 월차수당으로 빼요. 식사는 다 사줘요. 식당은 없는데 3,000원정도 식권으로 나와요. 입사할 때 이런 것과 관련해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직원들도 그런 것 갖고 아직 따지는 것 없으니까 그런 것 있으면 따지고 싶은데 직원들도 말이 없고 회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못해요. 4대사회보험은 다 가입 되어있어요. 일하다 다친 적은 없는데 기계에서 다친 사람 있어요. 통으로 손가락 딸려 들어가는 사람, 재단사가 실수로 손가락 잘리고. 회사에서 산재로 해줘요. 나올 때까지 치료해주어요.

고용보험은 자체에서 관두었을 때 고용보험 실직하면 타 먹는 건데, 지금은 회사에서 고용보험 줘라 해야 나오는데,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안 써줘요. 본인이 못마땅하고 나갔을 때는 안 해줘요. 고용보험을 들어도 이런 것 때문에 받을 수 없어요.

나이는 만 48살이예요 결혼은 16년 차이에요. 지금의 부인은 자취하다 옆집에서 만났어요. 아이는 국민학교 6학년 5학년 2명이예요. 4인 가족이예요.

교육하는데 힘들니까 지금 집사람이 하나한다고, 구멍가게 떡볶이 장사해요. 가구총 소득은 집사람이 한달에 40-50(만원)갖고 오고 내가 비철에는 갖고 오면 250(만원)정도. 비철에는 내가 200(만원)갖고 와요. 그러니까 합쳐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육수준은 자기 애들은 잘 가르치자고 하는데 따라가기 힘들어요.

우리는 학원 말고 시험지 대교에서 나오는 것 해요. 그리고 학원 보낸다면 태권도 보내요. 시험지는 1년에 200만원 끊어서 해요. 카드로 이용해서 선불로 지급해서 시험지 들어와요. 태권도비용 8만 원 씩 해서 둘이 16만원, 학교급식비 나가고 4만원씩에서 4만5천원씩 하면 8-9만원, 거기다 집세 15만원정도 나가는 것 있고, 장난 아니죠. 임대아파트라고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14만2,000원인데, 전기세 가스비 월세 다 포함하면 한달에 25만원정도. 웬만한 집은 더 많이 나가죠.

임대아파트는 옛날에 달동네 판자촌에서 6년 거주하다보니, 세입자 임대가 떨어져서



들어가게 되었어요. 지금 4년 됐어요. 여기는 50년까지 임대예요. 15평이에요. 애들이 커지면 나와야죠. 주택에 대한 부채는 없어요. 내 개인의 부채가 한 600(만원)정도 되요. 집에서 모르는 개인부채. 누구 말마따나 한탕주의라고. 그래서 로또 경마 포카 그런 것이 쌓여서 3년 동안 쌓인 부채예요. 어떻게 갚긴요. 그냥 갚는 거지. 누구 말마따나 로또 한번 맞으면 되잖아요. 운이 따르면. 한순간에 맞는 거지요. 그래서 자꾸 빠져요.

한탕이라는 거 사람이 조금이라도 부채가 있으면 한번 건지려는 하는 양이 늘어나요. 그냥 친구들이랑 끌려 다녀서 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서 처음에 좀 맞으니까 재미나서 하게 되었어요. 인쇄계통에 있는 사람들치고 한탕 때문에 부채 많이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인쇄하는 사람들 놀고 먹고 쓰는 것 좋아해요. 나 자신도 그런 쪽으로 많이 빠져있고, 사람들도 뭐가 안정이 안 되니까, 그런지 생활도 일도 안정 안 되니까 할 일없이 시간나면 그쪽으로 빠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10년 20년 전에는 물가가 지금처럼 그렇지 않아서, 돈 만원으로 생활하는데 지장 없었는데, 값어치 없고 10만원할어도 금방 없어지고, 돈이 값어치 없고, 물가 올라가지, 버는 것은 한정되지 그걸 맞춰서 생활하려면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 건강문제, 제일 큰 문제는 주택문제죠. 임대주택이니까 애들이 커가니까 중학교 되고 고등학교 되면 방도 따로 있어야 하는데, 방2개로는 어려우니까, 큰 평수로 늘려야하는데 26평이라도 생각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그 지역에 생활에 맞게 임금도 준다는데 애들 학원에 보내고 하려면 한달에 300(만원)정도 필요해요. 주택 마련하는데 어려운 점은 돈이 모이지 않는다는 거죠. 저축하는데 문제는 중도금이 문제죠. 5년까지는 아직 그 회사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10년 뒤에는 자영업 생각하고 있는데, 놀면 그러니까 뭐라고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애들이 보이스카웃 하는데 평화의집에서 하는 것이예요. 학교에서 하면 굉장히 비싼데, 한달에 25,000원정도이니까 해요. 그런 대도 정보가 있어야 들어가요. 서대문 이쪽에 있어서 하는데 저 멀리서 오는 사람도 있어요. 정보가 미숙하면 찾아서 하지도 못해요. 보이스카웃에서 일년에 2번씩 함께 가족여행이 있어요. 문화생활이예요. 그 것 말고는 다른 문화생활이 없죠. 집사람이 장사하니까 전혀 못해요.

근로자의 복지단체 임금 주택문제 가 큰데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는 되는데, 주택보급 문제가 되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일자리 큰대기업에서 확 풀어야하는데, 조그만 소기업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만들어야하는데, 일자리 없어서 젊은 사람

들 놀고 있잖아요.

비정규직 영세업자들이 제일 필요한 것은 자기가 벌어먹을 수 있는 일자리나 주택 문제, 애들 교육문제가 크겠죠.

앞으로 1년 안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조그만 가게 있으면 얽매이지 않게 마음 편하게 애들 키우고, 집사람 간수하면서 살고 싶어요. 요즘 직장은 불안한 상태예요. 밑에서는 치어 오르고, 나이는 먹어가고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직장 다니고 있어요.

노동조합은 탈퇴 했어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도움 많이 줘야하는데.

처음에 노조에서 영세업체 많이 도와준다는데, 사람들이 많이 따라주지 않으니깐,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나 자신부터도 탈퇴한다는 얘기 하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직장도 멀고 하니까 멀어지네요. 마지막으로 여당이나 야당보다 민주노동당도 옛날 영국 처럼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 많이 헌신해주길 바라고 있어요.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셋

이름 : 민○화 (38세), 남

인터뷰 : 2005. 9. 9 저녁 노동건강연대

지금 하는 일은 인쇄예요. 톱슨, 박스입니다. 박스를 만듭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인쇄계통에 들어와서 박스공장에 다니게 되었어요. 18년 전에. 누구에게 소개를 받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봉제공장에 (일)하다가 소가죽도 팔아보고 잡지책도 팔아보고. 아유 젊은 나이에 어떻게 기술도 없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기술 배우려고 한군데 다니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일하면서 힘들었을 때는 내가 몸 아팠을 때예요. 나는 몸 아파 죽겠는데, 사업주는 자꾸 일만 시켜서요. 아파서는 쉼 적도 없었고. 일하면서 좋았던 적은 아직까지 없어요.

지금 일하는 데는 2명이 일해요. 사장까지 해서 2명이예요. 직원이 한명이죠. 하루에 10시간 일해요. 8시 반부터 오후 6시 반까지 일해요. 그럼 9시간 반인가요. 밥 먹는 시간 30분이예요. 토요일은 일 없을 때는 3시에 끝날 때도 있고, 1시에 끝날 때도 있고, 대충 없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요.

일주일에 보면 55~56시간 정도 일해요. 성수기 때, 일 바쁠 때는 보통 보면 야간 할 때 3시간 반 일해요. 요즘은 들어가서 야간 1번 했어요. 한가해요.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일이 한가해요. 시간외수당은 있어요. 여기는 프로수가 아니고 야간하면 현찰로 주더라고. 야간하면 2만원씩 줘요.

한 달 임금은 200(만원)잡으면 되요. 야간수당까지 포함해서요. 보통 일 바쁠 때는 (야간을) 보름도 하고 열흘도 하고 그래요. 지금은 들어 간지 얼마 안되는데 바쁘면 그렇다는 거죠. 야간은 별도고요. 월급은 월급대로 나오고, 본봉이 180만원이고. 20만원은 어떻게 주더라고요. 무슨 수당인지 20만원 줘요. 월급을 받아봐야 알아요.

아직까지 공제되는 금액은 없어요. 그 얘기는 아직까지 없어요.  
나는 정규직으로 들어갔어요. 원래 등본 갖다 주면 정규직 아니에요? 의료보험 만들

면 직원 아니냐고요? 의료보험만 가입되어 있어요. 아직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은 아직까지 안 들었어요.

저는 들어 간지 얼마 안 되서 (추석상여금) 기대를 안 해요. 일한지 얼마 안되서.

퇴직금이요? 글썄요. 직원이 하나로 안 줄 확률이 많겠지요? 입사할 때 퇴직금, 보너스 그런 얘기 안하고, 그냥 기본급 월급만 이야기하고 들어왔어요. 근로계약서 이런 것을 안 적었어요. 대부분 다른 곳에 입사할 때도 기본급만 이야기해요.

회사마다 다 다르겠지만 사람이 많으면, 퇴직금 보너스 그런 것까지 다 정하죠. 직원이 몇 십 명 가량 되면, 보너스가 몇%다, 퇴직금 있다, 사대보험 들어간다. 그 얘기가 다 하잖아요. 대부분 직원들이 하나 있거나 둘 있거나 하기 때문에 회사가 월급만 정해요. 회사가 얼마 안 되서, 퇴직금 받은 사람 있는지 모르겠고요.

아직까지 여태 일한 회사에서 퇴직금 받은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 인쇄계통에서 영세한 사업장이 많다보니 떼어먹는 곳이 많아요. 월급도 떼어먹고, 퇴직금도 떼어먹고, 사람들이 일부러 떼어먹고, 쥐야할 것 안주고, 그런 데가 많아요. 못 받은 월급이 6, 7백만원 되겠지요.

회사에서 받는 것은 밥은 회사에서 사주는 것이고, 연차나 월차 같은 것 없어요. 보너스는 이제 얼마라고 계약이 없고, 대부분 사장 마음대로 주고, 10만원도 주고 20만원도 주고, 자기마음대로 주겠죠.

사회보험은 당연히 사업을 하게 되면, 원래 원칙은 다 들어 줘야 해요. 여기는 사업을 체린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들겠지요. 일단 의료보험 먼저 시작했어요.

사장이 지금 돈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은 빨라야 6개월 정도 늦으면 1년 지나서 들겠지요.

입사한지 열흘 되었어요. 이전의 직장에서는 해고당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오밤중에 전화가 와서 고만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만두라고 한 것은 처음이예요. 전에 사업장도 이렇게 정규직이었어요.

지금 일자리는 들어간진 얼마 안 되는데, 사람이 좋아서 있는데, 앞으로 가봐야 알겠지요. 사람이 일단은 변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사람이 좋아도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 한명이어서 아직까지는 회사가 불안정해요. 일이 없으면 언제 해고당할까?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일이 불규칙하게 있어요. 일이 있다가, 없다가, 놀다가, 바쁘면



일하다 그렇습니다. 얼마큼 다닐지 지금은 몇 개월이라고 장담 못 하겠고, 가는 때까지 가보는 거예요.

지금 일자리 구하는데 6개월 걸렸어요.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예전에는 회사 그만두면 바로바로 구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유는 요즘에 사람마다 경기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인쇄계통에 실감 나는 게 뭐가 있냐면, 일이 없으니까 사람채용을 하는데 없고, 다니는 사람도 해고하려고 해요. 그게 문제예요. 일이 없어서.

지금 사는 데는 사글세예요. 보증금 얘기해야 되요? 보증금 2천만원이에요. 월세는 10만원씩 내요. 왕십리에 살아요. 주택과 관련해서 부채 있기가 있지요. 보증금 중에서 천만원은 내꺼 아니예요. 그냥 이자도 없이 돈이 없어 못 내고 있어요.

18년 일을 했는데, 집에다 돈을 보내기 때문에, 돈을 못 모으죠. 한달에 버는 총수입 중에서 집에 보내는 돈이, 그전에는 평균 60%정도 보냈어요. 요즘에는 경기가 안 좋아서 실직하고 있어서 못 보내고 있어요. 시골에 애도 있고, 집에 생활비도 보태주고. 시골에 부모님하고 애하나 있어요. 딸하고는 떨어져 살아요. 10년 전에 결혼했는데, 잠깐 살다 이혼했어요. 아이는 9살인데, 지금 같이 살지 않아요. 혼자 살아요. 애 키우는 능력이 없어서요. 나도 같이 살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서 경제적 능력과 남자가 혼자서 애 키울 능력이 자신도 없어요. 같이 사는 거요? 글썄요. 언제가 될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집에 생활비는 한달에 50만원정도 들어요. 나머지는 저금 하고 그래요. 많이 넣을 때 30만원도 넣고, 평균적으로 20만원, 30만원도 넣고, 지금은 하도 많이 놀아서 저금한 돈을 다 까먹었어요. 너무 많이 놀았어요. 부채해결 때문에 신용카드 써봤어요. 쓰면 갚고 또 쓰면 갚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고 갚았어요. 아직 갚을 돈 150만원정도 있어요.

10년 전에는 그래도 경기가 좋았었어요. 살기도 좋았고, 요즘은 현재는 불안정이에요. 불안정. 내가 그 회사 가서 백만원 받으면 뭐해요. 2백만원 받으면 뭐해요. 언제 해고당하면 몇 개월 또 놀아야하고. 그만큼 또 까먹고. 앞으로도 나가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쁘면 나쁘지 안 좋아질 것 같아요. IMF 터지고 나서 현재 와서 보면, 가만 갈수록 정부는 나아진다고 하지만 돈 없는 서민은 아직까지 나은 것 하나도 없어요.

나는 서민도 못 되요. 나는 서민도 아닌 핫바리예요. 서민 아래예요.

요즘의 20:80사회라고 가진 자, 못가진자 그런 것 느끼죠. 나도 돈이 없다보니까.

나도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이래 고생 안 하겠다 생각해요. 뭐 그것만 생각 하나요. 어디 가서 도둑질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별다른 생각 많이 해요. 나도 사람인데. 한 2년 전부터(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돈 없을 때 병원에 다닐 때. 또 집에 쌀이 없어, 쌀 살 돈이 없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한국사회에서 병원에 가더라도 너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고, 애들 공부를 시키더라도, 애들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고, 한국 사회에서 애들 교육시키기도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병원에도 못가고. 무상의료 무상교육 당연히 필요하지요. 나야 당연히 지지하겠지만, 한국 사회에서 언제 오겠느냐가 문제예요. 이거는 당장 고쳐지는 것 아니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10년이 걸릴지, 20년 걸릴지 어떻게 알아요? 장담을 못하지.

당장 필요한 것은 먹는 쌀이에요. 먹는 쌀!

경기가 안 좋아서 가장 어려운 점 한 두 가지 아니예요.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어요. 경제가 나아져야 우리 같은 돈 없는 서민들도 일자리가 팍팍 나오는 것 아니요?

앞으로 1년 후에는 돈이 있으면... 아직까지 그것 생각 안 해 봤어요. 문화생활은 요즘에는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가서 쉬어요. 시간 있으면 자전거 타고. 잘 타는 것 아니고 남들만큼 타요.

나라가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이 경제발전을 잘 지켜 좋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대기업 중심으로 일하기 때문에, 소기업 중소기업에 아예 신경을 안 써요. 다른 나라에선 중소기업 신경 많이 쓰는데, 그것 먼저 고쳐 나가야 해요. 소기업 중소기업 키워주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사회에서 실업률이 많으니, 내가 돈이 있어야 옷을 사 입던, 신발을 사든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요? 정부에서 대기업만 돈 뺐주지 말고, 소기업을 위해 경제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라 이거죠.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 발전이에요. 아무래도 경제가 발전이 돼야 나한테도 일자리가 생겨서 좋겠죠. 안정적인 일자리겠죠.

노동조합도 반감지도 않아요. 옛날 같지 않고,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에서 말들이 많던데, 비자금 말이 많아요. 노동조합이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이나 조합원 조직했으면 조합원을 위해서 열심히 좀 도와주어야 하는데, 위에서는 너무 비자금 때문에 말이 많더라고요.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위해서 조합원들을 위해서 열심히 투쟁을 해야 해요. 도와줘야



해요. 사업주한테 월급을 못 받았거나, 퇴직금 못 받았거나, 노동자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져야 해요. 나한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 필요는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는 답변하기 좀 그러네요. 떠나고 싶어요. 너무 인자 사람들이 보는 눈들이 싫어요.

그것 하나 물어보고 싶어요. 설문조사든지, 인터뷰가 도움이 될런가 모르겠네요. 노동자들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설문조사든 인터뷰 도와줄 것인데, 하면 뭐해요. 사람이 실천이 중요한 것이지. 실천한다면 얼마든지 도와주겠어요.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해요. 실천.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넷

이름 : 서O호 (34세), 남

가족 : 부모님

인터뷰 : 2005. 9. 10 저녁 노동건강연대

형제가 2남 2녀인데, 형 누나는 분가하고 제가 부모님하고 살아요.

부모님은 일은 안 나가시고, 제가 일을 하죠.

하는 일은 금속 후가공하는 일, 밀링일이예요. 공장은 일산에 있어요.

정밀기계로 깎고, 밀링을 해서 철을 원형으로 깎고 하는 일인데, 힘들어요. 일하는 시간은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일주일에 4번 일하고, 나머지는 이틀은 6시에 퇴근해요.

토요일도 6시에 퇴근하구요. 토요일은 못 쉬는 대신, 일 없는 날은 일찍 가요.

공장장, 나, 기술자하나, 외국인 노동자 하나가 일해요.

월급은 야근하면 120만원, 안하고 병원 다니고 하면 100만원, 지금 월급은 야근수당 포함해서 120만원 받아요. 처음부터 야근 포함해서 얘기했어요.

여기는 8시에 끝나는 것도 공장장을 잘 만난 거예요. 다른 데는 9시 넘어서까지 일 시켜요. 여기 있기 전에는 60만원 받았어요.

어머니 이 치료 때문에 지금 일을 하는데 몸이 아파서 그만두고 싶어요.

엔씨가공 일이 적성에 맞고, 재밌는데, 이 일 하다가 다른일 시키고. 공장이 노동자가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나 그렇지 않아요. 더 배우고 싶어서 직업훈련도 알아봤는데 마땅한 데가 없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인문계 나왔어요. 서울이 싫어서 충북 진천 가구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리고 서울 올라와서 청계천에서 명진전자라고 2년 하다가 여기저기 떠돌아 다녔어요. 인쇄일도 하고, 인쇄는 너무 일이 힘들어서 몸이 많이 축났어요. 용접하고 사시도 했는데, 용접도 알곤 용접 배우려고 갔었는데 엔씨를 시켜서 시작했어요.



피곤이 쌓여서 목이 아파졌어요. 목이 이렇게 돌아가서 고개를 똑바로 들 수가 없어요.

신촌세브란스 갔더니 이상이 없다고 나오고, 한의원 무료봉사하는데서 치료받다가 너무 오래해서 눈치 보여서 그만뒀어요. 지금은 경혈치료 받는데 조금 나아졌어요.

치료비가 너무 나가서 스트레스가 엄청 나요. 어머니 이 해드리는데 300만원이 드는데, 내 치료비까지 들어서 힘들어요. 어머니 이 해 드리려고, 부랴부랴 공장에 들어갔어요. 이가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치료비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일하는 공장에 4대 보험은 안돼 있고, 근로계약서는 안 썼어요. 그냥 생활정보지 보고 들어갔어요. 구두땀기도 해 봤는데 그 때는 직업소개소 통해서 했었죠.

공장일이란 게 성취감이 없어요. 사장이 무조건 빨리빨리 하라고 하고, 인간관계 맺을 시간도 없고, 공장 일에 질려버렸어요.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24시간 풀가동 시키고, 쉬는 시간도 없고, 쉬는 시간 되면 바로 들어와 일 시켜요.

원래는 공장일도 괜찮은 일이에요. 제품은 솔직하잖아요. 기계는 거짓말 안하니까. 사람답게 일할 수 있으면 괜찮은 일이란 거죠. 대인 관계능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영업이나 판매처럼 활달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니고, 자영업에 속한 부속물이라고 생각해요. 겨울이었는데 어느 공장에 들어갔어요. 인원이 많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화장실도 못가고, 사장이 죽벌 경영하는데 불만이 많았어요.

분위가 서로 잡아먹으려는 분위기고, 다독이는 분위기가 없고, 야근을 10시까지 시키면서도 고마워하는 분위기가 없고,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느 날 밥 먹으러 가는데 일을 시키길래 물건을 집어던지고, 그만뒀어요.

사장이 월급주고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너무 분하기도 했지만, 좋게 넘어갔어요. 민주노총에 전화해 봤더니 사장한테 경고 주는 거는 할 수 있어도 벌금은 못 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넘어갔어요.

대만은 중소기업이 많다는데, 우리만 대기업이야. 자영업자들이 꼴찌야 피라미드의 밑바닥이죠. 자영업자는 우리 피를 뽑아 먹어야 사니까 근무시간, 인건비 먹고 사는 거

죠.

우리들 세금을 왜 대기업 주냐구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자식한테 상속하고... 대만처럼 중소기업 주면 좋은데. 우리나라 먹여살리는 건 중소기업인데 대기업 무너지면 우리나라 망하는 것처럼 말하는데 상당히 불만이에요. 노무현이 쉰 말도 잘 하더라,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싸울 생각은 안 하고.

피라미드 구조에서 밑바닥에 있는 사람은 살기가 힘들어요. 누가 공장 노동자 하려고 해요. 공부만 하려고 하지. 공부한다고 우리나라 먹여 살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님 생전에 많이 잘해드리고 싶은데 몸도 망가지고. 집안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요. 누나나 형들도 도와줄 형편이 안 되고.

일 그만두고, 아르바이트 할까. 공장일은 질려버렸어. 무조건 빨리빨리,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무조건 일하라 그러고. 자영업자들이 머리가 나빠요. 기술로 나가야 되는데 노동자들 기술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공장노동자들끼리 서로 의존하고 사는데 아니라 서로 올라타려고 하고, 나는 싸우고 싶지 않은데 얻는 게 뭐가 있다고. 약하게 보이는 사람들 일 더 시키고, 서로 헐뜯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누가 옆에서 죽어도 거들떠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내 경제상황이요? 어려워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이 어려워요.

더 나아질 것이란 생각은 안 해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 생각은 하죠. 90%를 1%가 갖고 있는데 나머지는 10%갖고 싸우고.

원래 학교 때 꿈은 검사였어요. 사회 나와서는 공장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었는데,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신용카드 만들려고 했는데 자격요건이 안된대요. 저는 새마을금고 통장 썼는데 신용카드 안 된대요. 우리은행, 조흥은행 갔더니 안 된다고, 직업이 공무원이거나 확실해야 되는데 영세사업장은 안된대요. 돈이 필요해서 만들려고 한건데, 신용불량자 되도 한번 쓰고 싶어서... 개인적으로 빚은 없어요.

결혼생각은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여자가 고생하는 거 뻔히 아니까. 형도 보고, 아버지도 봤지만 아주 뛰어난 게 아닌 이상은 여자가 경제력이 많으면 몰라도. 결혼을 연기하자 생각했어요. 연기하는 건지 포기하는 건지.

지금은 나 호구지책 하고, 부모님 하고 사는 게 급해요.



정부의 노동정책이요? 대기업 중심에서 벗어나서 중소기업, 자영업을 살려야 돼요. 그래야 노동자가 좋아지고, 대기업 살리는 돈으로 5인 미만 공장 사람한테 1억씩 나눠주면 기계 사고, 대출 받고 노동자들도 혜택이 올 거잖아요. 공간에서 인심난다고... 그럼 공장 일들 해요. 내 주변에 공장일 하는 애들 많았는데 지금은 없어요. 공장주들이 지들 먹고 살려고 노동자 피땀을 쥐어짜잖아요.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 주니까.

노조에 대해서도 할말이 많아요. 무슨 대회 때도 노조가 폭력을 사용하고, 책임의식이 있다면 그럴 수 있는지, 노동자를 정말 생각하면 그럴 수 있는지, 노동당 되면 노동자들 좀 나아질 것이다, 생각했는데... 싸움만 하는 시절은 지나갔어요. 책임감 있게 고단수로 가야 되는데, 리더십이 없는 게 문제예요.

노동자들 주택을 지어준다든가, 작은 집이라도. 공장에서 종합검진도 받게 해주고 병이 나면 몇 달 동안 치료로 받을 수 있게 해 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공부를 더하고 싶은 적도 있었어요.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이죠.

내 사회적 위치는 맨 밑바닥, 노숙자 바로 위, 내 계급을 알아요. 이 끈을 놓아버리면 바로 노숙자가 되는 거죠.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돈이고, 시골에 가서, 한 6개월 다 떠나서 아무도 없는데 가서 살고 싶어요. 일하면서 피곤이 쌓여서 목이 아파요. 답답해요.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다섯

이름 : 유O기, 남

가족 : 부인, 아기(네살)

인터뷰 : 2005. 9. 20

금형제작을 합니다. 압출금형 한지가 만 11년 됐어요.

그전에는 회사 지사에서 닭을 관리했어요. 완전히 다른 업체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서울)올라와서 배운 거예요. 처음 입사한 것은 기계영업직으로 했어요. 그러다가 현장으로 내가 바뀌 달라 했어요.

압출금형, 사출은 많은데 압출은 많지 않아요. 현재 일곱 개(회사)가 있는데 하나가 며칠 전에 부도났어요. 그 일이 우리에게 들어와 일이 많아요. 성수동에 세 회사가 있는데 한 개가 조만간 영업을 폐지해요. 영업이 안 돼서... 충분히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돼요. 기술이 못 따라가 통합합니다.(대담자가 전에 근무하던 곳과)

일반금형이 있고 특수금형이 있는데 압출은 고가품, 특수금형이죠. 사출을 하는 금형이요.

1~2명 있는 데는 조그만 것을 만들고, 우리같이 10명 이상 되는 곳은 주로 고가품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고, 기술력이 못 쫓아가요.

임금이 안 맞아요. 우리 같은 회사는 3D, 기피현상인데 들어오는 사람은 많은데 와가지고 보고는 그냥 갑니다. 하는걸 보고 하루나 이틀 하고 힘들어 못하겠다면 갑니다. 돈 달라 소리도 안하고 그냥 가버려.

뉴타운에 대한 얘기가 첨단 쪽으로 많이 빠지는데 첨단 쪽은 성수동에서 해박야 성수동에 아무 것도 없어요. 봉제공장들이 있고, 인쇄가 좀 있고 그리고 사출공장들 그리고 자동선반 하나 놓고 뭐 그런 종류라고.

우리 같은 데는 기계가 어떻게 보면 대형이에요. 건물 1층 아니면 지하예요. 2층도 못 들어가요. 옛날 00정밀도 지하에 갔다가 다 주저앉았었어요. 2층에 올리면 150키로 200키로 되는 게 한 두 개도 아니고, 팡팡 놓고 하면 벽 나가요.

아파트형 공장도 마찬가지로야. 엄청나게 두껍지 않으면 2층에 못 가요.



구두공장 많지만 밀창 절단하는 기계. 큰 거, 돌아가면서 쿵쿵 하면서 잘라내는 거, 그거는 우리 옆에 있었는데 쿵쿵거리서 잠을 못자요. 그러다보니 사실상 뉴타운 들어오면 1층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수동에서 그럴 수 있는 게 얼마 안돼요.

이 지역에서 영세단지가 낫지 않나? 지금 단지가 없잖아. 영세단지가 된다면 제 입장을 봐서는 아무래도 가면 좋겠지. 침단 쪽이 아닌 비슷한 업종들끼리 모인다면 그 곳이 좋지.,

바이오단지가 들어오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일할 수 없죠. 새로 들어온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기 적응 못하는 사람은 어디가도 적응하기 힘들어요.

지금 이곳 근무하다가 일곱 여덟 군데 다니다가 다시 우리 회사에 들어온 사람이 네댓 명이에요. 다른 데 가면 많이 받을 것 같아? 천만에. 그 업체가 그 업체야. 임금을 조금 주면 안 갈라고 한다. 그래서 기술력도 떨어져.

금속계통하고는 임금차이가 많이 난다. 금속계통을 따라가지 않고 압출공정에서 제품생산 해 내는 거기에 비하는 거야.

지금 월급은 공제하면 200만원쯤. 많이 공제되면 180만원.

계장급 이상은 월급제, 나머지는 시간제다. 시간급은 야간 많이 하면 많이 오른다.

나는 야간 수당은 있다. 하루 일하는 시간은 여덟 시간에다가 야간일 하고 싶으면 하고, 야간은 통제를 안 하니깐. 야간해서 250정도다. 저 같은 경우는 야간 안하면 20만원 빠진다. 230만원쯤 된다. 주 44시간. 토요일 네 시간 근무. 44시간 기준 230만원 나온다.

야근은 대중없다. 보통 9시까지 하고 그러면 250정도.

일요일은 안하려고 한다. 월급제인 경우는 특근수당이 작게 나온다. 밑에 사람들은 야간 많이 하면 우리보다 많이 가져간다. 일요일 (특근)두 번에 야간하면 오히려 우리보다 월급 많이 가져간다. 매일 야간하고 본인이 피곤하고 하니깐 거의 8, 90%는 9시까지 한다고 봐야지. 토요일은 12시 반까지만 하더라고, 잔업 안하더라고.

노동자들에게 현안은 임금이죠. 금속일 하는 것과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앞으로 어떻게 집 마련하나? 전세는 지금 3,800밖에 안된다. 지금은 14평. 15평에서 빠진다. 집을 마련한다는 것은, 계획은 아예 포기해버렸다. 청약도 포기했다. 아예 안

된다. 봉급쟁이 봉급 받아 가지고는. 처음에 돈 모아가지고 능곡에 가가지고 주공아파트 조그만 거사서 내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아파서 돈 다 까먹었잖아. 00정밀의 퇴직금까지 받은 거 다 까먹었잖아. 부도났을 때 퇴직금을 받았던 거.

임대아파트는 안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임대 들어갔던 사람들 아파트 관리비가 장난이 아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1.5배 비싸다고 봐야지. 임대아파트는 안 있어 봤는데 신청했다가 안됐지만 그 다음에는 얘기 듣고 안 했던 거야. 들어갔던 사람 후회하는 사람 많다.

정부시책이 잘못된 거야. 얘기 들어 보면 4명이면 3명은 관리비가 비싸다. 자질구레한 게 많아. 장기임대아파트가 취지는 좋은데 사실상 외국같이 그게 안 된다.

조금씩 갚아나가는 그런 것이 좋다.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처럼 장기적으로 사는 것. 중국이 그러더라고, 그런 집은 판매가 쉽지 않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20년 정도 잡더라고.

아픈지는 오래됐다. 어디 뚜렷하게 안 좋은 게 아니고 몸이 골았다.

원래 어려서부터 원인을 몰라 가지고... 다리도 관절이 안 좋은데 그 이유를 모른다. 병원에서 돈 그렇게 까먹어도 이유를 몰라. 무릎하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자꾸 나온다. 한번 다쳐도 회복이 빨리 안 된다.

의료비로 목돈이 나갔으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 DNA 검사나 원인이 왜인가 하다보니 돈을 다 까먹었다. 암 걸려서 지금까지 한 1억 이상이다. 암은 초기라, 치료는 되었다. 몸이 약하다 보니까 초기에 나타난 거야. 그 바람에 살았다.

치료비는 의료보험 받는거 받고 못 받는거 못 받고. MRI는 못 받고(의료보험). 몇 번을 받았는데. 그거 한번 촬영하면 보통 120만원이다. 한양대학병원에서. 지금은 조금 싸졌어요. 한 80만원. 처음 할 때는 200만원 넘게 썼다.

귀가 안 들리는 건 소음하고도 관계가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고. 원래는 어렸을 때 물 속에서 잘못된 거야. 다이빙. 물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가지고. 고막이 터진 게 아닌데 압력 때문에 신경이 죽어버렸어. 아주 그 문제가 엄청 불편해. 대화가 안 이루어지는 거야.

일하는 곳이 소음이 좀 심하다고 봐야죠. 시끄러운 현장에서는 떠나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하는데.



지금 의료비를 많이 지출을 못하고 있어요, 애 학원가야지. 어린이집(교회에서 운영); 보육비는 얼마나 얼마 안 들어간다. 15만 원 이상. 구립은 대기자가 많다. 12만 7천 원도 있는데 워낙 밀려가지고. 송정동에 2군데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유치원등에 안 보내고 싶다. 6살 때까지는 안 보내고 싶어. 충분히 놀게끔 하고 싶다. 근데 애가 놀 상대가 있어야 하는데...

엄마가 중국 사람이다 보니 문화체계가 틀리고. 애들 교육시키는 것이 조금 문제가 있지.

집사람은 조선족 교포, 애는 만 세살. 세 식구 살고. (내)나이는 토끼띠 43. 늦게 결혼해서 사 년째 됐습니다. 독신으로 살려고 했다. 지금 회사 사장이 중국에 출장을 보냈다. 출장을 갔는데 그 회사를 보니까 고치러 간 게 아니라 선보러 간 거야. 그래서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한거야. 지금 국제결혼이란 게 말로만 그렇지 쉽지 않다.

대기업에 납품하며 어려움은 뚜렷하게 확 집어 얘기 못하겠네.

개네들(대기업) 조건이 공사장도 마찬가지로지만 전체적인 와꾸, 도면이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는 도면이 없다.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 압출공장의 금형을 독일에서 하나 만들어온다. 우리보다 세배로 비싼데. 그걸 지네들이 분해를 해가지고 도면을 본따, 그리고는 똑같이 만들어라. 모델은 안 보여줘.

그거보고 고대로 하는데 어떤 부품이 들어가는지 모른다. 하다 보니까 똑같이 안 나온다. 독일은 압력이 얼마고 치수가 얼마고,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시뮬레이션 하는 데가 없다. 그걸 우리 형편에 맞춰야 돼. 두 세번 실험을 해가지고 맞추는데 일단은 한 개씩. 보통 삼 개월 걸린다. 우리가 만들어 납품해 가지고 공장에서 제품을 뽑는데 한 번에 나오지 않는다. 몇 번 수정을 해서 그 형이 나오는 거야. 보통 다섯 번은 고쳐야 돼. 한 번 고치면 한나절 간다. 그게 끝이 아니다. 쉬운 게 아니다.

하루 이틀 배운 사람이 아니라 오래된 숙련기능공이 그래 필요하다. 경험이 필요하다.

계약할 때 제품 완성도만 가지고 하면 중소기업 같으면 사양이 어떻든 간에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거는 아니야.

볼트도 그렇고 강도가 있다. 볼트에 보면 인장강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맞춰야 한다. 그리고 규격품이라야만 되고. 하다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규격부품이 없으면 깎아야 한다. 그런데 자기네는 대량으로 만들어서 갖다 공장에다 갖다 놓지만 우리는 한두 개 만들어야 한다. 납품이 계속가면 대량으로 만들지만 그게 아니거든.

그러다보니 수의계약일 때는 '다음번에 하나(일거리) 주세요.' 하면, 오다가 떨어지는데, 입찰은 그게 아니잖아. 입찰을 하면 결국 대기업이 입찰을 할 때는 단가를 낮추는 거야.

납품단가가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다. 예전 30% 남는다. 이러면 땅짚고 헤엄친 거고, 지금은 10%도 안 된다. 단가는 대기업에서 정한다. 자기네 정해진 게 있다. 입찰을 그 돈으로 할 라냐 안 할 라냐.

그 전에는 회사가 많이 남았어, 작년까지도 괜찮았는데 올해 석유값 빵 뛰면서 꺾떡거리고 있어. 우리가 생산하는 게 석유화학 제품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이 금형으로 설치 생산하는 제품이 석유화학제품임) 재료값이 비싸지니까 자기네가 이득이 적게 나올 거 아냐. 그러면 우리한테 연관이 되는 거야.

일이 확 떨어져. 그리고 단가가 낮아져. 그게 타격이 오지. (단가를)올릴 때는 조금씩 조금씩 올리고 낮출 때는 확 내린다. 주유소 기름값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돼.

기름값 올라가면 따라서 조정을 봐야 돼. 거기는 전부다 석유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대기업 거래처 여섯 번 정도 들어가는데 두 번은 적자다. A/S를 많이 하다보니.

하루 가면 청주공장에 여관비 들어가지 차량 운행비 들어가지, 가서 그 사람 노동력 팔아야지. 그것 따지면 적자야. 적자여도 가서 해준다. 다음 주문을 위해서다. 중소기업(과의 거래는)끼리는 적자나면 거래 끊으면 된다. 대기업은 쉽지가 않아.

그래도 결제는 대기업은 납품하고 오케이 사인만 되면 돈이 나온다. 그게 편한거야. 대기업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다는 게 그것이다. 대신 \*\*같은 경우는 어음이 많고 00는 어음은 적어요. 현금과 어음 섞어서 6:4정도. 근데 어음이 장기간 어음이야. 00도. 와리깡한다. 보통 6개월 이상 된다. 중소기업이 6개월 묶여 있는 돈인데 쉽지가 않지. 그것만 믿고 하면은 하루 아침에 들어 먹어. 그거만 믿으면 안 된다. 들어오자마자 와리깡한다. 아니면 물품대금으로 나가던지. 그러니까 물품대금으로 나가던지 바꾸는 거야.

중소기업에게는 아직도 못 받은 거 있다. 5년이 지났는데.

중소기업은 납품해도 자금력이 딸리니 빨리 안준다. 그러면 거래가 끊겨 버려요.

우리도 그렇다. 볼트 같은 것을 외상으로 사오고 갚고 그러는데 안주면 거래가 끊겨 버려.

대기업의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그 얘기 위에도 했다가 제가 지금 갈등이 많아요. 완전히 왕따야.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게 해. 내가 입바른 소리했다가 요번에



00대기업에 갔던 사람들이 타격을 좀 입었어, 내가 대놓고 그랬거든.  
그거 가지고 사표 쓰려다가 말았는데, 대놓고 얘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될 뻔했어. 중소기업도 큰 데는 그래요. 갈아뭇개가지고. 압력을 넣어가지고, 알게 모르게 작용하는데 00정밀 지금 거기가 그 형국이야. 00정밀도 00(대기업)에 똑같이 납품했어. 불만을 얘기했다가 잘못된 거야.

중소영세업체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요 근래에 와서는 자금 융통이죠. 실질적으로 자금대출 그런 게 웬만한 중소기업에 쉽게 안돼, 법적인 조건 그거 못 맞춰요. 정부가 보조하는 게 뭐 있겠어요, 중소기업 육성 방안이 공평했으면 좋겠고, 기준이 정확하게 만나와 있어요. 자금대출도 (지금 회사도) 성수동에서 못해 가지고 한강로3가에 가서 회사가 대출 받았어요.

지금 일은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어차피 거기에(압출금형) 발들여 났는데. 체력이 되면 좋은데 체력이 딸리고 있다.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여섯 - 실직자

이 름 : 류○희 (34세), 여

인터뷰 : 2005. 9. 20 낮 2시 노동건강연대

실직기간은 2달 반 정도입니다. 실직하게 된 이유는 건강 때문입니다. 많이 안 좋아요. 치료는 평생동안 계속해야 되는데 고착된 상황이라서 내 노력 하에 병원 의사선생님 상담하에 끝까지 뱉어낼 수 있는 여하에 따라 평생동안 치료해야 하는 것 이에요. 전에는 병원 다니며 양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잠시 양약을 쉬는 동안에 한약을 먹는 상황이에요.

직장이라고 할 수 없어요. 월차, 퇴직금 이런 것은 전혀 없었어요. 맨 처음에는 건축 인테리어 하다가 일용직이지 뭐. 그러다가 식당 일용직으로 바꿨지요. 그러다가 식당에서 월급제로 일했어요. 마지막으로 일할 때는 얼마 안 했어요. 두 달! 거의 다 짧게, 짧게 일했어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집(일자리)이다 아니다, 일하는 사람의 이동거리를 보면서 일하는데, 훔 보면서 주방 보면서 두 가지는 할 수 있는데, 손님 없을 때 세가지를 요구하는 식당이었는데 제가 버틸 수 없어요. 주인의 요구사항이 너무 지나쳐서. 내가 나이가 적다보니까 '네' 하고 일해야 하는데 2달 채우고 솔직히 말씀드리지 할 수 없다. 평균적인 일한기간은 1달 2달 정도 됩니다. 건축 인테리어는 6개월 정도 되고, 식당으로는 5년 가까이 일했어요. 식당을 자주 옮기는 것은 제가 다른 기술이 없고, 자격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통 40대, 50대가 넘는 사람들이 일하는 데니까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일 하니까요. 어떤 할머니가 나이도 어린데 한국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하냐고? 이쁘다고 하네요. 보험 들어주고 일한 곳은 없어요.

하루에 12시간 넘게 일하면 기본이 120만원이 넘어야 하는데, 일이 힘든 가운데 하루 12시간 일한 것 치고는 임금이 너무 싸요. 설거지하면 손톱이 다 닳아요. 제가 가는 집은 다 바쁜 집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임금 제대로 쳐줘요. 나는 120만원 이상 올라가진 않았어요. 나이 40 넘으면 150만원까지 받아요. 11시 출근하면 11시 퇴근, 10시 출근하면 10시에 퇴근하고, 오후4시 출근하면 새벽4시에 퇴근해요. 그런데 정리하면 새벽 5시, 6시 퇴근할 때 있었어요.



구직은 현재는 컴퓨터 배우는 욕심이 생겨서요. 너무너무 갈망하던 거라서 지금 그거 배우느라고 다른 것 안 알아보고 있어요. 여건이 된다면 아마도 사무실에서 일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내 컨트롤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 그때.

일자리 구하는데 있어서는 아마도 하게 되면 건축이나 식당이나 많이 배치가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하고 싶은 장래희망은 아니고요. 단지 내가 경력을 쌓아야 한다거나 그런 거, 조금 더 사업 같은 것은 50대 넘어야 하니까, 지금 내가 많이 접하고 사람다루는 것도 어떻게 다루는가 하나하나 몸에 익히고 해야 아니까, 그런 것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건축이나 뭐 이런 쪽에 많이 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장된다고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나라가 복지던가 장애인들 복지시설 쪽으로 걸만 따라가지 말고 체계적으로 구체적이고 속까지 받아들일 수 있고 접목시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생활에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접목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고자 하는 사업도 그렇고, 선진국이 되려면 밀바탕이 되어야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나도 애 키우는데 조금이나마(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면 아예 복지관이나 장애인시설도 들어가시고 아예 그런 장애인시설도 국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거 없잖아요. 다 사설이고 아예 국가에서 운영해서 장애인도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전적으로 국가에서 운영해서 하는 장애인시설이 없어요. 다시 세워져야 해요. 수유리에 하나 있고 아직은 아니야.

식당도 일해 보면 주인이 나이가 젊으면 고용보험도 빨리 받아들이고 4대 보험도 빨리 해줘요. 나이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옛날식으로 밀어붙여요. 내가 나이가 적으니까 무조건 명령조로 해요. 주인들은 시간엄수만 직원들만 엄수 엄수해요. 주인들은 일찍 오면 좋지 늦게 가면 좋지. 새벽에 일 끝나면 술 한 잔하고 가라는데 일 끝나면 몇 시간 지나요. 언니들은 예전에 호프도 운영했던 사람들이라 술 한잔해요. 나만 따로 가면 따들림 당해요 그래서 먹을 수 있지요. 그런데 오후 4시에 출근해야하는데 어떤 때는 7시, 8시까지도 가요. 주인이 아들 소중하다고 술 못 먹게 하면 아들이 엄마하고 싸우고 결국 우리한테 영향이 미쳐서 그 불똥이 우리한테 튀어요.

우리도 퇴근시간 안 지켜 주는데 늦게 출근해야지 그래요. 그러면 서로서로 관계가 안 좋아져요. 말도 많고 남을 깔아뭉개는 게 엄청 심해요. 너무 싫어요. 결국 직장하고 집만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많아요.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당장이라도 지금 하던 식당이라도 일을 하면 할 수 있는데 지금 컴퓨터 배우고 싶은 욕심에 아직.

앞으로 배우고 싶은 것 많은데, 음식도 하는데 아기자기하게 음식장만을 못해요. 접시에 예쁘게 놓기, 접시 데코레이션, 음식 데코레이션. 그냥 자격증이라도 있으면 160만원 훌쩍 뛰어요. 요리에선 자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격증 하나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한식자격증 땀으면 좋겠어요. 한식은 우리 몸을 지켜주고 살도 안 찌잖아요.

그리고 미용. 제 자신을 돌아보지 못 해서 피부가 망가졌지만, 조금 더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피부, 머리 손재주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요리는 내년으로 잡고 있고요. 가까이도 있다고 했지만 자격증 딸 때까지 가르쳐 주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자격증까지 아니고 가정에서 특별식으로 해먹을 수 있는 것만 있어서 좀 머뭇거리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도 조리사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 배려 해준다면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컴퓨터 문서자격증은 좀 더 연습해야 해요. 일단 집에 컴퓨터 없으니까. 머리로 이것 누르려고 하는데 손은 다른 것 누르고 있어요. 폭넓게 생각해서 5년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이 중에서 자격증 따는 것에는 머리가, 미용 쪽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따기도 쉽고. 요리는 실습에 실습을 해야지. 손맛이 있기는 하는데. 아직 내 컨트롤을 못 해서 간을 맞추는데 좀 더 연습해야 해요. 컨트롤을 놓치면 혀가 맛을 잃어요. 그래서 머리는 손맛이 필요 없으니까.

계획하고 따는데, 자격증 딸 때까지 밀어줄 수 있는 이용기관 그리고 재료 구비가 힘들 것 같아요. 정보 이용할 수 있는 곳, 싸게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요즘 많다는데 나한테는 그런 정보가 안 들어오네요. 노동자훈련은 부족한 상태고, 교육이 한 주에서 두 주로 제한되어 있고, 교육이 계속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직업교육이죠. 사내교육이든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옛날에 그건 아주 옛날에 받아봤어요. 다니던 직장에서. 처녀 때. 지금 일하고 있는 사람들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노동자들 안 뺏기고 다른데 안 뺏기죠. 물론 노동자도 노력해야지요.

실직한 기간 동안 생계유지랄 것 없어요. 크게 들어가지 않게 제가 생활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방이 있으니까 재료만 있으면 그때그때 먹고 자고. 아직 냉장고가 없어요. 나 죽어라고 살고 있어요. 다른데 보조는 없어요.

나이는 34살이고요. 결혼은, 지금 애기가 중학교 1년 1명 있어요. 가족은 지금은 혼자예요.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방과 후 프로그램 배려해줘서 무료로 이용도 하지만, 병원 같은데 이용할 때는 병원도 많이 이용하거든요. 가끔씩 우리아이가 학교수업을 못 따라갈 때 이용할 때 국립재활원이라고 해놓고서 이용가격이 너무 엄청나게 비싸요.

음악프로그램 미술프로그램 한 프로그램에 10만원 넘어가니까 이용하려면 엄청 부담이 되요. 재활원이어서 싸다는데 다른 데는 더 비싸다는 얘기 아니야. 보통 한 프로그램이 한주에 2-3번 1달 이용하는데, 정서가 불안하거나 행동장애가 있다든가 심리적으로 정서하고 비슷한데, 틀린 데, 몇 개 하다보면 일주일이나 갈 때도 있어요. 프로그램 2-3개 생각하면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있어요. 국립재활원이라고 하는데 가격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어요. 나는 솔직히 영국으로 가고 싶어요. 무료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복지가 개선되어야 해요. 걸만 따라하고 속은 따라가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나는 거기서 엄청 열 받아서 어디 토로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은 인성교육이 중요하죠.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면 다른 공부는 조금 못한다 해도 인성교육이 사회까지 미치니까 그게 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학교부터 가정 사회 모든 이용하는 기관에서 전반적으로 실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군데만 실행한다고 되는 것 아니잖아요. 정부하고 노동자하고 사업주하고 참여하여야 개선이 되지. 그래서 장애문제, 사회시선 때문에 못나오고 노동자문제도 급하지만 이 문제도 급하거든요.

20:80의 사회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예요. 하루하루마다 느끼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하루에 몇 번씩 겪는 것 아니에요?

지금 가장 절실한 것 건강이 밑바탕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건강이 되면 못할 것 없거든. 음식도 남들 먹는 것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음식조절까지 하고 있어요. 무척 조심해야 해요. 여기서 합병증까지 생기면 진짜로 일 못 다녀요. 솔직히 두려워서 그러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집에서 해먹고 그래요. 다양하게 해먹지 못해요. 재료비가 비싸서.

한 달 치료비가 엄청 많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쉬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 때문에 한약 쪽으로 눈을 돌렸어요. 많이 들어요. 전적으로 약값으로 들어요. 일반사람들도 건강식품으로 그렇게 먹는다면 먹는데, 그만큼 들어요. 임금 120만원 받는 것에 어떨 때 병원 가게 되면 일주에도 한두 번 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절반을 넘어가기도 하고 안 좋을 때 보통 20~30% 들어가요. 보험이 안 되는 약이 많이 있어요. 달아놓고 계속 먹어야하는 약인데 보험혜택이 없어요. 한약도 의료보험이 안 돼요. 몸

이 망가진 원인을 아는데 치료를 못 하고 있으니깐 한의원 쪽으로 상담해보면 호전될 수 있을까 상담해보면 길게 잡아라 해요.

아이랑 같이 있을 때 함께 의료혜택을 받고 싶었는데 주소가 아이 아빠 앞으로 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 했어요. 지금은 저라도 의료혜택이 되어서 충분히 치료 받고 싶어요. 기초생활수급자로 신청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이랑 함께 있지 않고 단신이고 나이가 어려서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필요한 서류들이 어려워서 포기했어요. 너무 필요한데. 몸 건강해야 일도 할 텐데. 의료관련해서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의료비 말고 만약에 애랑 같이 있으면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요. 아이도 건강이 많이 망가졌으니깐 아이는 국가도움을 받고 있어요. 지금은 우선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은 5년까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애가 나이가 차면 그 시설에서 나와야 되요. 제가 국가시설이 없다는 것은 국가에서 전적으로 해결해주면 이런 일(아이와 떨어져 있는 상황)이 안 생기거든요. 전부 국가기관에 맡기면 오후에 찾아 와야 되고. 이용요금도 비싸요. 한 시간에 얼마 얼마 그러거든요. 차라리 영국에 가면 애가 자유로워지고 다 해결되잖아요. 애가 발전이 되잖아요. 거기 가서 살면 애가 자유롭게 살고 표현하는 것 자유로울 것 같아요. 여기는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거형태는 싼 월세 내고 있어요. 보증금 아주 적어요. 아 참말로 보증금 아주 작아. 부끄러워서 말할 수 없어요. 밥해먹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밥해먹고 살아요. 월세는 10만원이예요. 10만원 짜리 방 보증금 아주 작아요. 고집부리고 밥 해 먹어요. 남들 머라 해도. 목욕시설이 없고 화장실도 밖에 따로 있어요. 공동화장실. 그래서 그런 점이 애로 점이긴 해요. 주방 있지만 요리하기에는 힘든 구조예요. 옛날 설계집이라 주방에서도 씻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요. 옆집 할머니가 세탁실, 샤워실 잠귀 났을 때 굉장히 열 받았어요.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전반이 필요해요.

일단 사업주에게 호소합니다. 작업환경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 영세노동업체들만 따로 모아갖고 지금 여기도 그렇긴 한데 그거에 그치지 말고 추진해야 하고요. 영세업체들만 모아갖고 하고요. 거기에 따른 영세노동자들에게 맞게끔 임대아파트 가격을 낮추어서 이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 나 같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가격을 낮추어서 해주었으면 해요.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은 아주 오랜 된 집, 가격 낮은 집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앞으로 나아질 확률은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것도 내가 좋아지려고, 환경을 개선시켜 보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사회가 반쳐 줄 주 모르죠. 물론 내 노력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 거고.

## 못 다한 이야기 '나는 영세사업장 노동자다' - 7인의 목소리

이야기 일곱 - 사업주

이름 : 이○남 (45세), 남

가족 : 부인, 아들 둘(고3, 중학생)

인터뷰 : 2005. 9. 22 낮 1시 노동건강연대

공장 2년 3개월 운영했습니다. 이전에는 관리자로 있었어요. 같은 업종에서 관리자로 생활하여서 인간관계도 있고 거래처도 아는 데가 있어서 해보라고 하여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해서는 지식도 없고, (다른 것은) 잘 아는 분야도 아니고 위험성도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 전에 이 일 한지 15년 정도 되었어요. 제화업종의 '저부'일을 하였고, 지금 사업하기 전에 관리자로 2~3년 있었습니다. 일할 때가 더 나아요. 여러 요인들이 있는데 지금은 정신적인 생각들이 힘들어요. 힘들어도 계속해야죠.

가장 큰 어려움은 지금 사업장이 소기업이라서 하청업체거든요. 그러면 계약은 아니지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요. 강제성이 있습니다. 원가계산에서 본사에서 마진을 줄 때 정상적인 마진을 주지 않고 깎아서 주기 때문이에요.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감수까지 하면서 하는 이유는 공장을 운영해야 하니까요. 직원들 놀릴 수는 없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세금문제예요. 대금회수가 안 되서 매월 적자라도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됩니다. 원청업체에서 부가세를 받지만 매월 적자입니다. 세무사에 의뢰하여 기장하는데 급한 데로 다른 것 매우고 하니 매월 적자가 생깁니다.

사업운영하면서 2년 넘어서 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누적된 금액입니다. 원금 상환은 못하고 빚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1년을 볼 때 이 사업이 6개월은 일하는데 6개월이 일이 없어요. 1년 사업이 안정되게끔 운영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과제인데요. 그동안 거래처가 많지 않았는데 메이커 있는 거래처 여러 군데 거래하고 있는데 앞으로 잘 되어야죠.

보통 하청단가에 4를 곱하는데 원청업체에서 정직하게만 마진을 주면되는데 그렇게 안해서요. 예를 들면 200~300쪽을 일거리 주면서 1000쪽에 해당하는 마진으로 하자고 하거든요.



그리고 하청업체들간에 경쟁도 있구요. 중국산 제품이 들어와서 단가영향도 미쳐요. 그런데 요즘은 중국산을 기피하는 것 같아요. 중국산 수제화는 많이 차이 나지만 시장품들은 별 차이 없어서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기피해요.

제화산업이 제작년 여름 이후 하향세예요. 업체들도 부도도 나고 도망가고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사업들을 줄이고 해서 업체가 많이 줄었어요.

산업정책에 참여하여서 의견들을 내어 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참여하고 싶어요. 지금은 그럴만한 업주들 모임들이 없어요.

임대료가 높아서 제화업체들이 외곽으로 빠지고들 있어요. 아파트형 공장들도 많이 있는데 임대료와 관리비가 부담이 되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뉴산업단지가 들어선다고 이야기 들었지만, 당장의 현실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대책방법까지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뉴산업단지 안에 기존의 금속, 제화, 인쇄업종의 소규모영세업종들 단지도 넣어줄 부지를 마련해 준다면 들어갈 의향이 있습니다. 임대료 관리비가 저렴하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사업장이 실평 40평 쯤 되는데, 보증금 1100만원, 월세 110만원, 관리비 10만원, 부가세 10만원 정도인데 월 130만원정도 유지비가 들어요.

지금 일하는 사람들은 부분가공으로 3분, 현장에 12분, 모두 15분이 일하고요.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고, 인맥으로 도급제로 해서 일용직으로 고용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일부 적용하고 있구요. 적용 안하는 사람들은 서류 내라고 하면 두려워서 안내거나, 세금 안내고 싶어서 안하거나 아니면 신용불량 등의 어려움으로 적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용이 안 되는데 세무서에서 산재하고 고용보험만 이야기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퇴직금과 명절 때 정말 떡값만 주고 다른 것은 없어요. 요번 추석 때는 떡값도 못 주었어요. 복지부분을 해주면 좋지만 경영이 이익이 없다는 것 직원들도 알고 있고, 복지여력이 없어요. 해결방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첫째 적자보는 6개월을 어떻게 작업할 수 있게 하느냐와 두번째 거래처 확보와 세번째 중국산으로 단가가 낮아지는데 단가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안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이직률이 높아요. 보통 50%는 3~4개월, 나머지 50%는 1년 정도 회사에 남아있지요. 집에 정기적으로 수입을 가져다주지 못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져다주어서 평균액을 알 수 없어요.

부인은 지금 사업장에 와서 장부 정리 일을 도와주는데, 임금은 안 주지요. 전에는 사업장에 나오지 않을 때 다른 일을 하였는데, 요즘은 몸이 안 좋아서 다른 일도 못하고 있어요.

결혼은 19년 되었어요. 아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 남 1명, 중학교 남 1명이고 (가족은) 총 4명입니다.

집은 자가이고요. 시세가 7천 500만원정도입니다. 지난 IMF때 경매로 싸게 구입했어요. 결혼해서 10년 되어서 장만했어요. 경매 아니었으면 지금도 집이 없겠죠.

가구의 부채가 회사의 부채입니다. 회사가 경제해결이 되어야 가게 재정도 원활할 것 같아요.

아이들 교육비로 많이 들어가고요. 대략 60만원정도. 지금은 빚으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중산층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요. 서민층이죠. 사회적 박탈감이요? 현실이 어려우니 생각할 틈이 없어요. 날마다 느끼는 거 아닌가요? 무상교육, 무상의료에 관심이 없어요. 행정이 너무 자주 변하고, 현실성이 없어 보여요. 된다면야 너무 좋지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경기회복입니다. 세금부담이 완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소사업장에 너무 과하게 부과되는 것 같아요. 규모에 맞게 책정되었으면 합니다. 현장을 모르는 상태에서 책정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산업단지가 조성된다면 이곳에 오래전부터 많은 업종들이 있었으니까 부지를 마련해주어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주 장 • •

## 영세사업장 노동자의 단결과 희망을 위하여

최창준 / 민주노동당 성동구위원회 위원장

### 1. 그 간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투쟁의 의의와 한계

지난 세월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싸움은 단위사업장의 요구를 담은 싸움, 그리고 4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투쟁, 부당해고, 미지급 임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대처 등에서 성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자주적으로 나서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도 또한 사실이며 현재 지역노조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업장의 영세성이나 하청 등 여러 특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요구를 폭 넓게 사업장 내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가장 근본적으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단결은 요원한 길이 되고 말 것이다. 길이 보여야 희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야 나아서 단결하지 않겠는가.

이제 사업장내에 갇혀서 해결할 희망을 포기했던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삶의 요구를 사회의 넓은 광장으로 이끌어 내자.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는 사회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고 노동자들의 요구도 정책적 요구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노동자들에게도 절실한 주택문제, 교육문제 등에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많은 노동자들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으리라고 보며, 그 과정에서 또한 새롭게 나타나는 노동자들의 실정과 요구를 반영시켜 내야 할 것이다.

### 2.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하여- 영세업체 노동자의 요구는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영세업체 내에서만으로는 최소한의 요구도 노동자들에게 보장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근로자 복지기본법이라는 중소기업노동자를 위한 법이 있기는 하나 예산, 노동자의 참여, 등등에서 많은 한계를 보이며 무관심한 법으로 되고 말았다.

이러니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자신의 일터나 자신의 일에서 보람을 느끼거나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실제 나이가 들면서는 소수를 제외하고는 더더욱 고용도 불안정해져서 결국 수십 년간 숙련된 기술을 버리게 되고 차츰 영세민으로 전락하고 만다.

이런 점이 그간 영세업체를 대표하는 지역노동조합에 노동자들의 참여가 저조한 원인 중의 하나로 되고 있다.

이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희망을 위해서 일에 대한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노동조합은 주택, 교육, 의료 등의 절실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모아 정부에 제시하고 쟁취하는 운동을 벌여나갈 때 노동자들도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어려움은 대기업이나 재벌기업 등이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강요하고 정부가 이를 조장함으로써 해서 빚어진 것이기 때문에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문제 해결의 많은 부분을 정부, 재벌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 3. 어떤 요구를 내세울 것인가.

#### 1) 사업장내에서의 권리 확대 (문종찬 글 참조)

각종 근로기준법이나 단체협약을 위반해도 아무런 제재를 가할 수 없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권리확보와 단결의 자유가 보장되기 어렵다.

- 단협 또는 노사 합의사항 이행의 책임 강제력 강화
- 명예 근로감독관 제도의 확대
- 4대보험의 실질적 적용을 위한 대안
-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개선



## 2) 구체적인 생활상의 복지 요구안(김성기 글 참조)

영세업체 내의 임금이나 기업복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기본복지의 요구를 내세우자.

주택문제, 보육과 교육에서 제기되는 문제, 그리고 산업안전, 의료의 보장, 또 문화와 스포츠 등의 여가문화 등의 복지가 주된 요구가 될 것이다.

각종 사회보험의 적용이 영세업체에서 현실화되기 위한 대책도 세워져야 한다. 조사 결과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영세업체의 각종 보험 요율조정문제 등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 영세업체 노동자 전용 임대 주택, 아파트 건설, 보육시설의 계획적인 확대,
- 영세업체 노동자 자녀 장학금 대폭 확대, 방과후 교육방 확대 등 교육 복지 정책
- 현장에서의 산업안전과 예방의학, 방문진료 등 의료, 보건에서의 복지 확대

## 3)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복지정책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의 참여

참여의 필요성을 보면

① 그간의 근로자 복지기본법에 의한 정책을 살펴보면 법에는 있으나 실행되지 않고 있는 것도 많고(예를 들어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주택 보급정책),

② 실제 대부분의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어떤 내용의 복지 혜택이 있는지 알지도 못 할뿐더러 혜택을 받고자 해도 조건이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는 사실상 까다로운 점들도 존재하고 있다.

③ 또 최근의 한국노총 건물의 리모델링에서도 보듯이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복지 예산이 엉뚱하게 쓰여지는 사례도 있다.

④ 그나마도 노동자들의 수혜대상 선정에도 문제점이 존재하고

⑤ 무엇보다도 다양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예산이 공정하게 쓰여지기 위해서도 영세업체 노동자 당사자들의 정책결정과 집행에의 참여가 절실하다.

⑥ 현행법의 노동자의 참여 보장안과 그 문제점; 현행법에 중앙노동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를 정하고 있지만 거의 제대로 열리지 않고 있다.

⑦ 예산 규모도 형식에 불과한 수준이라 실정을 반영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

⑧ 또한 각 지역이나 업종별로 요구의 구체적인 적용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실정에 맞게 적용되기 위해서도 그 지역이나 업종의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위의 여러 정황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당사자 참여의 원칙을 보아서도 영세업체 노동자 대표가 지금보다도 권한이 강화된 형태로 복지 정책 수립과 집행에 참여하는 것과, 영세업체 노동자 복지 주체의 확대(예산과 각 지방자치단체로 까지의 정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 중앙노동정책위의 강화, 지방자치단체에의 노동복지정책위의 설립과 노동자 대표 참여 보장, 노동복지 예산의 확대

## 4)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산업, 고용정책에의 참여

영세산업의 해결과제도 함께 내세워야 한다.

왜 산업 정책에 참여해야 하는가. 급격한 산업의 변화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결과적으로 대규모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산업의 변화가 피치 못할지라도 새로운 직업교육과 취업계획 마련 등 고용에 관한 대책은 절실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의한 변화, 가령 대책 없는 수입개방이나 재벌 위주정책에서 파생된 영세산업의 파산 등의 경우도 많이 있어, 이에 대한 노동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인쇄의 활판 노동자들이나 사진 제판 노동자들의 경우, 컴퓨터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만 명의 오랜 경력기술자들이 순식간에 실직, 또는 전업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또한 최근에는 무분별한 중국산 구두의 유입으로 인해 수많은 제화 노동자들이 갑작스런 일거리 감축, 실업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인쇄의 경우는 산업 변화는 어쩔 수 없는 처지라 할지라도 재교육 등 고용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노동자들과의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제화처럼 무분별한 개방 정책이라면 다시 정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산업, 고용 정책에의 노동자 참여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또 이런 사안은 아무리 훌륭한 단위 사업장의 근로계약을 가지고도 막을 수 없는 사안이기에 더욱 그렇다.

→ 산업, 고용 정책 위원회의 신설(내용과 권한은 이후에 더 논의할 필요)

## 5) 영세업체 노동자(노동조합)의 하도급 거래 감시에의 참여와 권한의 보장

그간의 문제제기 - 개별적으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업주들만으로는 대기업의 횡포, 하도급에 대한 불공정은 근절시킬 수 없다. 오로지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대기업의 불이익 행태에 대해서도 자주적이며 집단의 요구에 근거하고 있는 지역노동조합, 영세업체 노동조합의 연대체만이 공정단가, 대기업의 횡포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다. 따라서 하도급 거래의 감시 권한과 역할을 지역노동조합에게 보장하는 것이 대안이다.



→ 횡포에 의한 불공정거래 감시

#### 4. 영세업체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

이 설문조사의 목적은 단위사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고 정부 차원의 정책 확대의 절실함을 제기하는 것과 함께, 또한 한편으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이 자신의 요구를 확인해서 나설 수 있게 하여 영세업체 노동운동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나가기 위함이다.

이제까지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절실한 삶의 요구가 있음에도 사업장 내의 한계 때문에 포기하며 살았던 것이나 다름 없었다. 그 절실한 요구들을 받아 안아 정부차원의 대책요구로 발전시켜야만 한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요구는 그 태생부터 사업장을 뛰어 넘을 수밖에 없고, 사회정치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는 새로운 사회체제, 진보적인 체제하에서 가능해지겠지만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사회의 주체로 묶어 세워내기 위해서 또 일정한 요구를 확보, 실현시키기 위해서도 정부에 대한 대책요구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영세산업의 문제(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제재 및 규탄, 고용, 산업정책 등)도 노동자가 나서지 않는 한 결코 사업주들이 나서서 제기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이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어려움을 떠넘기고 있는 대기업이나 재벌과의 투쟁은 노동자들의 힘이 중심으로 나설 때에 가능하며 영세업체 노동자의 역사적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노동조합이 끊임없이 영세산업의 문제 해결이라는 과제에 주도적으로 나서는 과정은 영세산업 노동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까지도 신뢰와 권위를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이제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주인된 권리를 좁은 사업장 내에서의 제한된 요구만이 아니라 사회의 넓은 광장으로 끌어내고 광범위한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 영세업체 노동운동을 발전시키는 관건이 될 것이다.

이제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한 손에는 사업장내의 민주적인 질서를 만들기 위한 과제, 또 한 손에는 정부에게 산업고용정책과 노동복지를 요구하는 과제를 쥐고 투쟁에 나서야 하며 또 이미 나서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영세업체 노동자 대표의 각종 노동복지 정책과 집행 과정에

의 참여의 중요성이다. (물론 민주노총의 몫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지만 총연맹은 영세업체 노동자 대표를 꼭 참여시키면 될 것이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의 의견과 복지 요구를 모으는 과정 자체가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영세업체 노동자들을 이 사회의 주인으로 역할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다.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단결의 경험이 그리 많지 않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함께 생활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더 많은 발품을 팔며 지역마다 현장마다 찾아다니며 요구를 듣고 그 요구를 사회적으로 내세웠을 때 노동자들은 움직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단합대회, 자유 발언대, 공청회, 서명운동)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참여시키고 또 영세업체 노동자들에게 맞는 창조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자들을 묶어 세워 나가자.

이제까지의 지역노조의 성과와 함께 영세업체 노동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어 나가자.



## 부익부 빈익빈의 원산지, 성수동 공장지역

정대효 / 성수삼일교회 목사

퇴약실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모두들 열심히 외쳤다. 난 잠시 마이크를 들고 차로 동네 한바퀴를 돌았다. 뜻밖에 사람들이 귀 기울이는 모습들이 시야에 들어와 반가웠다.

“노동자들의 복지와 권익을 위해서 지역조사를 나왔으니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시고 시원한 커피와 우산을 받아가시라.”

성수역 주변 공장지대를 돌면서 마이크를 외치긴 했지만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진 못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미처 우리가 상담에 응해주지 못할 만큼 많은 분들이 오셨다. 퇴근길에 시간이 바빠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와서 대처하지 못한 아쉬움이 지금도 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유리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이다. “노동상담을 받을 데가 없다”는 하소연이다. 전에는 노동조합도 있었는데 이젠 노동조합도 없고, 무엇보다도 일자체가 없어서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는 막연한 불안감에 떨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이 앞선다.

그런데 동네한바퀴를 돌면서 느끼는 소감은 예전에 10여년 전까지 생활야학을 운영하면서 성수동 지역에 자리잡은 주 노동자 군이 청소년이 많았는데 다들 나이가 바뀌었다는 사실이다. 그렇게 많았던 청소년 노동자들은 그럼 어디로 갔을까? 유추해 보니까 다들 청소년 노동자들은 강남이나 타지역으로 서빙업 등 비정규직으로 나가고, 그 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체하고 있다.

난 성수삼일교회 선교 비전이 “청소년 노동자 선교”를 목적으로 세워진 교회였기에 18년 동안 이 지역을 지켜오면서 9년 전 야학을 그만두기까지와 10여년의 세월동안 지역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 것을 오늘처럼 실감하기는 처음이었다. 갑자기 우리지역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내가 땀흘려 지켜온 이 지역은?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열악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별하게 더 주거문제로 압축되는 성수동 실태가 새롭게 다가온다. 서울숲 배경으로 한 분당선 입주를 앞두고 성수동 개발계획으로 부동산업계는 들떠 있다. 그리고 부동산업계는 각 지역을 서로 암묵적으로 분할해서 나누어 가진지 오래다. 그런데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지금 살기가 어려워 총체적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자기 문제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지역주민 의식이 없다는 사실이 여실히 증명되는 것 같다.

그리고 새삼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야학을 그만두게 된 것도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민중교회로 우리도 우리 운동을 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그만두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이 지역적 과제는 생활야학(노동법, 산재보상보호법 등 노동자 권리를 찾는 야학)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새삼 더 든다. 그만둘 때 타공단지역은 대부분 문화야학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에서 우리 지역은 아직도 생활야학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됐음에도 우리 교회에서 거기까지 책임지거나 대비할 준비가 안 되었다.

사실 노동상담소 등 개인적으로 뜻이 있어 지역운동으로 들어왔던 분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지역을 떠난지 오래되었다. 그때 우리가 야학을 할 당시 30명 모집해서 10명 졸업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였고, 사실 30명 중 처음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하지만, 야학에 입소 후 상담해 보면 다들 중퇴나 초등학교 졸업이었다. 지금 자영업을 하거나 일하는 분들이 대부분 학력 실태가 이런 상황이란 사실이다. 사실 중소기업도 보호육성 되어야 하는데 50인 이하, 5인 이하의 소규모 작업장이기에 노동조건은 가장 열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기에 열악한 노동현실에 대처방법으로 정부의 도움이 있어야 한다가 대다수 여론일 수밖에 없다.

이 지역은 아직도 할 일이 많다. 노동자들의 복지문제를 성수동지역의 개발문제(성수동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와 아울러서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사실이다. 타 지역은 아파트단지엔 대부분 복지관이 많은데 이 지역은 그 흔한 복지관 하나도 없다. 다만 아주 오래전부터 복지관을 한다는 전제와 이제 겨우 위치 확보가 된 것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적 과제로 노동자들을 위한 근로자센터(노동자들을 위한 교육과 아울러 자녀들을 위한 장시간 노동자들을 위한 보육과 방과후 학교문제 처리가 돼야 한다)를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사실 의식주 문제는 사양산업이 아닌데도 사양산업화 되어서 중국물건으로 우리 놀라운 기술력을 이어받을 청소년 노동자가 없



다는 사실은 미래가 암담한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 지역의 특성상 또 하나의 문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까지는 어떻게 학원이라도 보내지만 대학교는 꿈도 못 꾸는 현실이다.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도 없지만 대학 학비도 감당할 수 없다. 성수삼일교회가 13년 동안 생활야학을 한 이유도 검정고시 야학을 거쳐서 대학에 합격해도 학비가 없어 대학진학이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한 결과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의 과제가 대다수가 주거불안임에도 가장 큰 문제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야기 하는 것을 주거문제만 정리가 되어도 이 지역의 어려움(일손부족 - 외국인 노동자 대신하거나 열악하기에 쉽게 옮겨 다니는 현실)을 대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이 기회에 열악한 50인 이하의 하도급 형의 노동자들에게 저렴한 임대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 지역에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기술학교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꼭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잘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방법이 다같이 사는 길이다.

현실성이 부족해서 창업을 쉽게 하고, 쉽게 망하고 그리고 소사장제로 일하게 해서 장시간 노동에 죽어가는 노동력 사장이다. 건강하게 일하는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타 지역은 44시간 노동제를 주장하는데 여기는 더 장시간 노동을 해야 그들의 임금을 겨우 따라잡을 수 있다. 이런 현실 타파를 위한 노력도 해야 하겠다. 직업훈련제도가 있음에도 여기는 직업훈련을 받고 싶어도 장시간 노동에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는 직업훈련도 받을 수 없다. 아직도 보너스가 없고, 떡값 수준인데야 더 말할 나위가 없다. 비정규직 타파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서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가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동일노동 동일임금제만 되어도 노동자 중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계속 벌어져 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실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의 기회란 사실을 새삼 머리에 떠올려본다.

다시 한번 지역운동을 하는 모든 단체가 성수지역의 개발과 더불어 이 지역의 터줏대감인 일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역건설을 해보는 운동을 시작해 볼 것을 건의해 본다.

## 끊임없는 아우성과의 특별한 만남

류순희 / 실태조사 자원봉사자

안녕하세요!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의 7월초에 제가 살던 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해결방안을 찾던차에 저의 경험과 저의 힘으로는 해결법을 찾지 못하여 그래서, 이 일로 상담 차 정태호 목사님을 만나 뵙고 상담하고 끝남과 동시에 목사님과 동행으로 여러분들이 추진하신 이 설문지 조사에 참가하게 되었다. 제가 접해왔던 방식과 조금은 색다른 방법으로 설문대상 응답자를 물색함과 개척하는 동시에 구축하는 것과 그 속의 내용 또한 구체적이면서도 광범위한 그러기에 사회와, 정부와, 사업자(대기업,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작업현장 환경개선, 복지보장과 복리후생 권리까지의 체계적이면서 짜임새 있는 설문지<접했던 설문지들과 다르게 너무 장대한 설문지> 문항을 접하는 순간, 내 가슴은 무엇인가 발견한 것처럼 뛰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샌가 그 어떤 마법의 매력에 매료되어 이끌리듯이 너무도 부족한 제가 어느덧 조사자가 되어있는 것이었다. 또한 평상시에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이 자리 그리고 쉽게 만날 수 없던 이 사람들, 또한 이 기회! 첫 날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벽참이 밀려옴과 동시에 내 가슴 속을 꽉 채운 무엇인가가 설새없이 요동쳐 끓어오름을 느꼈다. 누가 저에게 무엇을 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몇 년 사이엔 좋은 분들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도와주려고 하시는 분들과 고마우신 분들입니다. 여러 차례 이어지는 조사자의 역할을 이행하던 중 노동자 설문응답자들을 한꺼번에 세 팀을 작성했던 가슴 벽참의 뿌듯함이 내 온 몸을 전율시킬 만큼 꽉 채우고 있음에 자신이 놀라는 일도 있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번 설문지와와의 만남에 기초상식 없이 부족한 저를 끝까지 참여하게 해 주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면이 조금은 체계적이고 다양하게 구체적인 넓이와 깊이, 높이와 길이가 느껴지는 내용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기에 좋은 분들과의 즐거운 일자리에서의 만남 특이한 조사방법과 노상 천막조사의 매력, 모두 성심성의껏 임했던 모습들의 결과로 잘 끝맺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거리 조사장소에 있어서 내용과 동떨어진 장소가 된 것 같아서 좀 더 심사숙고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합니다. 성수동 일대를 더욱 더 폭넓게 선택할 수 있었으면 했다는 개인적 견해를 건방지게 말씀드립니다.

건의했어야 했나요? 활동하던 중에 사업주와 노동자가 함께 동의했을 때의 반응은 사업주가 옆에 있으니 무의식 중과 의식 중에 노동자의 문항응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몇 팀 겪었습니다. 4대사회보험 가입유무, 복지문제 개선방안, 유해환경 문제에 관하여 제일 큰 착오나도록 체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지개선을 위해 저항하고 싶어도 혼자 대항했다가 이마저 간신히 일하던 직장을 잃을까봐 염려스러워서 참고 일한다는 말씀들, 이 부분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일부의 노동자들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며 일하면서 사실상 문항지면상에서는 다르게 체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러기에 저도 화가 났습니다.

서로 얘기를 나누면 어떤 것이 문제라고 술술 얘기 보따리를 풀어놓으시는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해당문항에서는 막상 혹 연락갈까? 역시나 염려하여 역력히 차이나게 체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문항 정도는 제 손에 팬이 들려 있었으므로 고쳐 체크 할 수 있었지만, 전체 문항, 지루해하시는 설문대상 응답자의 짜증 비슷한 완고함을 설득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엄청난 노동시간에 비해 임금은 턱없이 낮은 이 현실의 비애의 목소리가 군데군데서 나오는 아우성의 외침들! 45Kg 이상의 압축된 것들을 10몽치나 두 손으로 직접 들지 못하니까 어깨와 등을 이용해 이동을 하면서도 설문지면상에는 정작 해당문항을 체크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상응답자들을 받다가 작업하는 현장으로 잠깐동안 전단지를 돌리러 갔을 때 보았고 그때 받았던 분들이 응해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웬일? 조금전에 그 무겁게 압축된 몽치를 한몽치도 아니고 몇 몽치씩이나 되는 것을 무거워서 몇 차례 주저앉으시기도, 위험하게 떨어트리기도, 바로 그 분인데 해당문항에는 20kg 중량 이상을 들어 올리는가? 라는 질문에는 “무” 라는 대답의 체크.

그리고 유해물질유무의 심각성은 각종 신나냄새, 본드냄새, 그리고, 화학약품 냄새들

이 코를 찌르고 눈이 따갑다 못해 저절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있어도 해당문항엔 “무”로 체크된 대답. 나는 여기서 궁금증이 일어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그대로 한명의 노동자에게로 질문했다. 왜냐하면 조금전 보았기에. 대답하시기를

“이 약품이 없으면 일의 진행이 어렵고 또한 일을 할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작업 개선방안이 사업주에게도 특별히 없는 것이 현실상황이다. 그리고 이 일 자체가 딱 뿌러지게 사용하는 약품들이 없으면 일의 작업진행 추진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없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체크하는 문항 또한 이 이유의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고 개선방안이 보이질 않는데 개선방안 자체를 할 수 없는 일이기에 굳이 항의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대답이 전반적으로 노동자실태의 대답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 근속 노동자분들 경우 나빠진 건강상의 특별한 해결방안이 없어 고스란히 노동자 자신들의 몫으로 남아있음을 절실하고 처절한 목소리를 외칩니다. 이 외침의 호소력을 듣는 사람의 안타까움에 동감이 갑니다. 그리고, 과다한 노동시간.

그러나 만약 노동부에 호소하면 당장 불이익이 시작되거나 강제퇴직을 당하고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퇴직금도 지불불가로 이어진답니다. 사실 서면상의 체크의 대답과 그분들이 풀어놓는 담화의 차이가 엄청나고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있었음을 이번 조사원으로 임하면서 느꼈던 점임을 말씀드립니다.

퇴직하고서 퇴직금 못 받아 쫓아 다니는 분들의 힘겨운 온 가족의 생계가 딸린 치열한 싸움, 임금 체불하고 오리발 내미는 사업주들과의 줄다리기 싸움, 예기치 못한 재해사고 당해 치료문제의 해결점의 기로에선 노동자, 평 부풀린 병원비 개인충당으로 고통을 이중으로 안고 있는 노동자 등 너무 안타깝죠? 이 문제 해결하여 자유를 주세요.

사업주의 애로점은 정부와 대기업에 비교하여 역시나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모든 조건의 작업환경의 어려움과 열악성에 대한 불만을 야기시켰고 강력히 호소하는 토로를 했습니다. 복지개선 관리 지속하는 것과 노동자들의 복리후생 인권보장을 지켜주어야 할 것과 모두 연결고리가 이어져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청업체 부속품과 자제 단가 고가격문제! 가계세, 각종 세금 경감해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조절유무를 절실히 간청하고 싶다는 걱정 섞인 해결방안을 찾고 싶어합니다. 정비, 자동차, 금속, 자전거 등의 정비업계, 생산직.

의류-제화의 경우 중국과의 과열 가격 경쟁속에서 겪는 심각한 갈등, 이로 인하여 이런저런 이유로 유지하기가 힘들어 진로 변경과정에서 경마에 잠시 눈 돌렸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파탄까지 겪는 등.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사업주, 노동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를 정부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가 필자 개인적인 궁금증이 일어납니다. 노동자나 사업주의 공통된 의견은 각종 세금감면 문제에 있어서 공통된 빚나가고 있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관행에 불만을 한 목소리로 아우성을 질렀습니다.

이 설문지 조사로 시작했으니, 이것이 첫걸음의 발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출발점이란 주춧돌을 쌓았듯이 통계로 그치지 말고 계속 질주하셔서 정부, 노동자, 사업주들과 모두가 함께 고민하는 대화의 장을 자주 마련하고 풀어나가고 이에 합당한 의견융합으로 일치점을 이를 때까지 멈추지 마시고 계속 추진해 주실 것과 탄탄한 대들보의 뿌리를 박을 때까지 임해주십시오. 이 글을 올리면서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우리나라 권력, 직위, 학력을 떠나 국민 개개인이 모두가 제발, 다같이 잘사는 나라로 만들어 봅시다.

노동상담 사례 ●●

거리 설문조사 때 노동상담도 함께 진행하였다.

상담의 대부분은 10인 이하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 근로조건개선, 부당해고와 관련한 내용들이 많았다. 상담사례 일부를 소개한다.

날짜	상담내용	처리방향	회사명	상담자
6.28	제화디자인공(개발), 고정급, 월급제인데, 임금체불(1개월 10일) 중이다.	노동부 진정 유도	○○제화	조○일
7. 5	회사 전반적인 근로조건개선 관련하여, 포괄산정임금제 (연봉 1800만원, 기본급+상여금/시간외수당 미지급/일주일 평균 55시간근무/월~토 09~19시, 격주토(09~16시) 연·월차휴가, 생리휴가 미적용 (1년 5일 휴가), 임신이유 퇴사 종용하고, 입사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업무는 의료무역 영업담당(직원 총 8명)	일반노조 소개 - 근로조건개선 및 노조설립상담	○○무역	나○수
7. 5	제화업종인데, 사업주가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등록했다. 사장이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앞으로 한달 사이에 해고위기에 있다.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지?	일반노조 상담소개		김○성 현○길
7. 7	구두제조, 구두패턴 재단(직원 총7명)하는데, 임금체불 3개월 켜다.	노동부 진정유도	○○	전○수
7. 7	부도(02. 6월초)가 났는데, 사업주등록자와 실제운영자가 다르다. 노동자(갑피 6명,저부 8명) 5월임금과 퇴직금이 미지급됐다. (5월 임금 160만원, 퇴직금-선금 50만원 나머지 미지급) 노동자들이 개인사업자 등록은 안했다. 4대사회보험은 가입돼 있고, 갑근세 안냈다. 현재 노동부에 진정한 상태다.	노무법인 및 일반노조 통해 체당금 신청권유	○○제화(주)	박○묵
7. 7	제화 저부, 갑피일을 하는데 임금체불, 이○남,150만원, 최○춘 30만원이 체불됐다. 입사할 때 퇴직금을 연 120만원씩 받기로 했다. 퇴직금 120만원 지급받은 사람이 있다.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만, 노동자가 직접 내지는 않았다.	서울일반노조 통해 내용증명, 노동부 진정	○○○ 컬렉션	이○남 최○춘